

# 한우미당

vol.211

Hanwoo Journal  
2024.06



6월호 표지 이미지

## 32 서한문

윤석열 대통령의 한우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협회 입장

## 34 성명서(2024.5.8)

한우값 대폭락! 정부의 방관과 농협의 관망에 농민은 죽고 싶다

## 성명서(2024.5.14)

FTA피해보전직불금 한우·한우송아지 품목 선정 환영

## 성명서(2024.5.16)

농협 축산물공판장은 도축수수료 인상을 유예하라!

## 성명서(2024.5.30)

3무(無)한 농식품부 장관은 답하라!

## 기획특집

### 38 한우법 제정 활동기

- 한우법 통과 및 농축산물가격안정제 도입  
국회 결의대회
- 한우법 통과 국회 릴레이 1인시위
- 한우법 제정 좌절, 남겨진 과제는  
농장과식탁 김재민 편집장



## 기획·연재

### 54 특별인터뷰

민경천 회장 취임 100일

### 58 협회 전용사로 '대한한우'

담양군지부 문석길 회원

### 62 6월 협회 전용사로 가격 안내

### 66 2023한우능력평가대회 축단협의회장상

김정란 한우샘농장 대표

### 70 새의자

신임 도지회를 가다 - 대구경북도지회  
인터뷰 -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

## 오피니언

### 76 기자수첩

한우산업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 사양·컨설팅

### 78 정확한 기록을 통한 고소득 창출하자

BA플러스 신일권 대표

### 82 한우 흑서기 사양관리

소우마음이은주연구소 이은주 소장

### 86 우리집 암소, 어떤 정액으로 교배할까?

고려동물병원 신민정 수의사

### 90 한우사육 100문100답

### 94 5월 한우동향분석

### 102 구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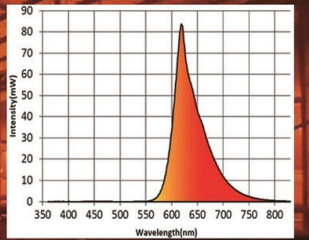
전국한우협회



로그인 디지털

# 모기퇴치등

## 모기로 인해 전염되는 질병으로부터 보호



모기등 특성 분광그래프

## 제품특징

### # 정확한 모기퇴치 파장구현

모기퇴치에 가장 효과가 있는 **610nm** 파장을 구현,  
이 파장을 벗어날 경우 모기퇴치 효과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음.

### # 신뢰성 및 안정성

고 성능의 LED Chip 사용으로 강력한 성능 발휘.  
우수한 내구성과 가벼운 무게로 안정성 및 설치용이.

### # 다양한 제품 라인업구성

다양한 사용 환경을 고려한 제품 라인업 구성.  
각 환경에 적합한 전등선, 타이머 등을 주문 제작 가능.

### # 검증된 성능

KS, KC 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Q마크 인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내생산 확인) 등을 보유.

### # 설치가이드 제공

우사 케이지 1칸(5m x 5m이내)에 모기등 1개 설치  
적절한 적색광의 조도조절 : 모기퇴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동물의 숙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적절한 조도 제공.

## 제품 라인업

### UFO 타입(30w)

| 모델    | UFO-PAR30     |
|-------|---------------|
| 입 력   | AC 220V, 60Hz |
| 소비전력  | 30W           |
| 광 효율  | 42(lm/W) 이상   |
| 총 광속  | 1,280(lm) 이상  |
| 사 이 즈 | Ø190x120      |



### 작업등 타입(30w)

| 모델    | AWLP-OS3S     |
|-------|---------------|
| 입 력   | AC 220V, 60Hz |
| 소비전력  | 30W           |
| 광 효율  | 40(lm/W) 이상   |
| 총 광속  | 1,188(lm) 이상  |
| 사 이 즈 | Ø120x260      |



### Bulb 타입(20w)

| 모델    | AWLP-OS2S     |
|-------|---------------|
| 입 력   | AC 220V, 60Hz |
| 소비전력  | 20W           |
| 광 효율  | 36(lm/W)      |
| 총 광속  | 766(lm)       |
| 사 이 즈 | Ø100x195      |



(주) 로그인디지털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10층 1009호(가산동, IT캐슬)

공장 :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182번길 13(가좌동) 02 3281 0771 / Fax 02 3281 0779



## 서한문

## 윤석열 대통령의 한우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협회 입장

지난 2년여간 한우산업의 어려움속에서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추진해 온 한우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쁨도 잠시,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만에 한우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우농가의 염원은 하루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허탈하고 분합니다. 안정된 한우산업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정쟁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우법 거부권 재가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캠프와 정책협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한우법이 발의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말하는 충분한 법적 검토와 여야협약이 없었다는 설명은 한우법을 정쟁의 도구로 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같은 여당의 표리부동은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려 정치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한우법 제정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균형감을 잃는다는 정부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김치산업 진흥법이 있다고 해서 다른 채소들의 법안이 난립하여 만들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한우는 한민족을 대표하는 민족문화 유산 상징입니다. 세계 유일의 특별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한우농가는 참담할 따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향후 지속될 소값 하락과 농가 줄도산 등의 사태에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 명료하고 내실있는 정책을 보이지 않고 재탕 삼탕의 정책을 내보인다면 강력한 한우농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우는 대한민국 고유의 유전형질과 그 순수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품종입니다. 전체 축산농가의 80%가 한우농가입니다. 그럼에도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법률이 없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한우농가 염원 하루만에 물거품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한우법 제정’ 목표 향해 전진

22대 국회에서 더욱 완성도 높은 ‘한우법 제정’ 희망  
현장 의견 수렴 법령정비-입법 활동에 역량 집중

한우산업 지원법은 반복되는 소값폭락 사태를 미연에 막고 막대한 재정을 쏟지 않게 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이런 위기와 불안을 겪지 않고 대한민국이 가진 독자적인 유전 자원 ‘한우’라는 보물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대한민국 축산의 중심인 한우산업이 어떠한 대내외적 상황에서도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개별 법률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한우농가 여러분,

제21대 국회는 폐원으로 한우법은 자동폐기 되었지만, 이것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삼고자합니다. 우리는 과거 7년간의 우직하고 끈질긴 추진력으로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법제화 관철시킨 저력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시 한우법 제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좌절하지 않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지역을 순회하며 한우법 제정에 담아야 할 정책과 가치에 관한 한우농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정교하게 다듬겠습니다.

또한, 여야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에 그치지 않고 공청회, 여야 합동 토론회 등 여야가 일치된 인식으로 원활히 한우법 제정에 이를 수 있도록 입법활동과 법령정비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한우산업지원법 국회 통과까지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한우농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 22대 국회에서 더욱 완성도 높은 한우법 제정이라는 희망을 다시 걸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한우협회장 민 경 천



## 성명서(2024.5.8)

# 한우값 대폭락! 정부의 방관과 농협의 관망에 농민은 죽고 싶다

한우값이 대폭락을 하고 있다. 재작년 추석부터 바닥까지 떨어졌던 한우값은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떨어지고 있다.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해 소비가 늘

## 정부와 농협은 한우산업 유지를 위한 농가생산비 보전 대책을 강구하라

이상하게 관대하고 농축산물 가격에만 집착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부재와 더불어 농가의 곁에서 함께 가야하는 농협 조직도 문제다. 지난 3월 농

어나길 기대했던 심리는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 날 등의 지출이 겹치며 '가난의달'이 되었고,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되며 소비위축에 적체된 도축물량까지 늘어나자 가격폭락으로 이어졌다.

한우 100여두 키우는 농가는 1년새 빚만 약 1억5천씩 늘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물가안정을 우선으로 별다른 대책 없이 안일하게 생각하며 방관만 하고 있어 농가의 울분은 커지고 있다.

생산비 폭등과 소비위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충분히 예견되고 막아낼 수 있지만 지금의 정부는 비정상적이다. 경기가 침체되고 생산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 또한, 정부의 무허가축사, 부속도 검사, 사육밀도 등 강도 높은 축산환경 규제 탄압은 농가의 생산비 인상을 유도했다. 어려운 시기 받았던 농가사료구매자금의 2년 일시 상환일은 도래해 농가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산을 대대적으로 할당관세를 통해 들여오고 있다. 외식물가는 줄줄이 인상하며 외식물가 상승률(3.0%)이 소비자물가 상승률(2.9%)을 3년째 웃돌고 있지만 외식물가에는

협중앙회장이 취임한 가운데 변화와 혁신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현재 농협은 조합원과 농축산인들의 고통은 뒤로 한 채 농협조직의 수익에만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공판장의 이름이 무색하게 농가가 무너지는 상황에도 도축(해체)수수료를 두당 2만원(14%↑) 올리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우산업 유지와 농가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최소한의 원가를 반영한 판매가가 형성되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최저생산비보장책 마련 ▲소비자가 피부로 와닿는 판매 확대를 위한 예산 대폭 지원 ▲수입육 대체 한우판매 차액지원 ▲도축 물량 일시적 시장격리를 위한 긴급 비축 및 긴급 군납 물량 확대 ▲사료값 차액보전 및 사료가격 인하 ▲농가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지원 확대 ▲농협 도축수수료 인상 유예 등 현재의 한우값 폭락에 대한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한우값 폭락에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대대적인 한우 반납 투쟁을 전개하고 그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 성명서(2024.5.14)

# FTA피해보전직불금 한우·한우송아지 품목 선정 환영

지난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FTA직불금) 지원대상에 한우와 한우송아지 외 2개 품목을 선정한다고 행정예고를 실시

## 다만, 발동요건·보전금 상향·일몰연장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다!

당 약 300여만원의 손해를 보는 농가들은 올해의 피해보전금이 지급되더라도 깊은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했다. 그간 수입소고기로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들이 그나마 일부 가격하락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며 제도적 보완 당부의 말을 전한다.

FTA 직불금은 공짜가 아니다. 이는 그간 수입소고기로 인한 한우농가들의 피눈물에 대해 정당히 지급해야 하는 당연한 피해보전금일 뿐이다. 사실상 까다로운 지급 조건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불렸다. 2013년 2개 품목(한우·한우송아지)이 처음 지급되었고, 2014년 4개 품목(한우송아지 외 3개)이 된 이후 한우는 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발동되었다. 최근 3년간 타품목을 보더라도 2021년 1품목(귀리), 2022년 0품목, 2023년 1품목(생강)으로 발동요건의 어려움을 알 수 있어 발동조건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보전금의 보전금액이 지나치게 낮다. 처음 발동된 2013년도 당시 수입기여도로 인해 한우 1두당 1만3,545원, 송아지 5만7,343원 밖에 지급되지 않아 직불금 신청 거부 운동이 일어났었다. 2020년도 피해보전 품목인 밤은 1ha당 지원금이 655원으로 쥐꼬리 직불금 논란이 일어났다. 이번 한우·한우송아지의 경우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1두

마지막으로 FTA직불금이 2025년 일몰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FTA로 인한 피해는 현재도 계속 누적되고 있으며, 변화된 수입 여건과 그로 인해 피해 보는 산업과 품목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FTA 최대의 대책이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정부와 기업의 의지도 없는 현 시점에 그나마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FTA직불금은 최소 5년이상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FTA직불금에 한우·한우송아지 품목이 선정되어도 한우농가는 좋아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한우농가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 FTA직불금 품목 선정은 사육두수 및 도축두수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 아닌 사실상 수입소고기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생산비 급증과 가격하락으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우농가에게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우산업 유지와 농가를 살릴 수 있는 최저생산비 보장, 소비촉진 예산 확대, 도축물량 긴급 비축, 생산비 절감 지원, 도축수수료 인상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성명서(2024.5.16)

## 농협 축산물공판장은 도축수수료 인상을 유예하라!

농협이 칼을 빼들었다. 지난 3월 신임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한 가운데, 변화와 혁신을 꾀한다는 농협이 농민들부터 옥죄기 시작했다. 전국의 농협 축산물공판장(부천, 음성, 고

**농협공판장과 농협사료의  
수익내역을 공개하고 부산물  
가치창출과 자구노력을  
선행하라!**

령, 나주)은 협회에서 제시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무시하고, 5월 16일 도축분부터 도축수수료를 일시에 2만원 일괄 인상을 강행했다. 한우가격 하락에 1두당 300여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한우농가는 농협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농협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이다. 하지만, 농축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지주 사업 구조상 농협 이익이 증가하면 농가의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신임회장이 취임하면서 모든 농협 조직 사업체에 수익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농협이 조직의 수익 증대만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수입증대와 가격하락으로 인해 2024년 FTA피해보전직불 품목으로 선정된 직불금을 수령해도 고스란히 도축수수료 인상으로 나갈 판이다.

농협 축산물공판장은 적자발생의 책임을 농가에게 떠넘기는 도축수수료 인상보다 부산물 가치창출을 위한 약속이행과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먼저

시행하라. 지난 2019년 농협 축산물공판장은 한우 부산물의 합리적인 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 세척시설 및 2차 가공시설 확충을 이행하기로 약속했으나 전혀 이뤄

지고 있지 않다. 당시 40만원이 넘던 부산물 가격은 4월 1일 기준 반값도 안되는 20만원 밑으로 떨어졌는데, 농가의 소득은 방관하며 오히려 도축수수료만 인상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으니 농협은 한우농가를 봉으로 보는가?!

농협이 농민과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인식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은 뒤로한 채, 농협 부실경영의 책임을 농가에게 떠넘기는 도축수수료 인상을 우리 한우농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출하할수록 손해 보고 있는 현 시점에 수수료 인상을 강행한 농협의 갑질과 불통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에, 향후 농협의 책임을 묻는 6월 농쟁을 시작으로 전국의 한우농가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성명서(2024.5.30)

## 3무(無)한 농식품부 장관은 답하라!

5월 29일(수), 제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재가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삼권

**농민소통공감(無),  
소득경영안정(無),  
지속가능대책(無)에  
대한 책임을 져라**

분립이 무색한 역사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써, 약 2년여 동안의 10만 한우농가들의 노력과 염원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었다. 허탈하고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현장농가들은 이 책임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먼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의 목적과 취지를 장관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여·야 의원이 모두 공감해 공동 발의했고, 여러 토론회 및 간담회의 숙련 과정을 거친 법이다.

형평성을 외치는 장관에게 묻고 싶다. 80%와 20%가 같으면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전체 축산인의 80%가 한우농가이다. 현재의 축산법은 허가·규제 위주의 법이며, 중장기 발전시책 수립 근거도 지자체 조례 모범으로의 역할도 없다. 산업의 생산액 규모와 농가 수, 생산주기 등 특성에 맞는 법을 요구한 것을 특정 산업만을 위하고 대다수의 지원이 쏠리는 것처럼 매도했다. 한우법 발의 시 제출된 국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수급조절이 필요할 때에만 지급되는 총 예산 100여억 원은 한우농가가 자조금으로 거출하는 1/2

수준이다. 장관은 농민들과 소통하고 있는가? 또한, 한우법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균형감을 잃는다는 것이 행정편의성을 말하는가? 협회가 2022년 법을

발의하고 2023년 물살을 타자 정부는 2007년 4월 이후 16년만에 '축산법 개정'을 통해 담겼다면 움직였다. 그 동안 수급불안, 가격폭락이 반복되는 상황에도 가만히 있다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TF를 만들고 단 한차례 회의하고 중단되었다. 또한 '한우법 통과'를 위해 협회가 국회에서 농축산인들과 결의대회를 추진하자 정공법으로 소통하기보다 동일동시간에 긴급 농민간담회를 잡고 농민을 갈라치기하던 술책만 있었을 뿐이다.

'농가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농업인을 위한 소득·경영안정을 강화하고 수급불안이 반복되는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던 장관은 어디 갔는가. 현장 중심의 소통과 경영비 상승에 대한 대책은 없고, 수급불안에 대해선 수입농축산물을 할당관세로 들여와 지속 가능한 기반을 무너뜨리고, 소값은 1두당 300만원 빛지는 상황에 소득안정대책은 전무한 장관만이 남아 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정부와 장관을 신뢰하고 믿고 함께 갈 수 있겠는가? 이젠 정부가 답해야 한다.



# 한우법 제정 활동기

2021.5. 한우산업 중장기 대책  
‘한우법’ 제정필요 공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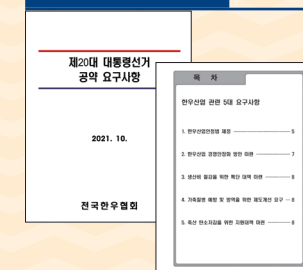
2024.5. 제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자동폐기



한우법은 최초 2014년 8월 박민수 국회의원(새정치연합, 진안·무주·장수·임실)의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발의되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21년 ‘한우산업발전법’내지 ‘한우산업안정법’으로 다시 재추진됐다. 국회의원실과 법안 초안을 다듬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한우산업 전환법’, 국민의힘은 ‘한우산업 기본법’ 등으로 법안명에 따라 정돈됐고 두 법안을 통칭해 ‘한우법’으로 불렸다. 한우법은 여·야 양당에서 모두 발의됐고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양당 농정공약으로 추진하도록 정책협약까지 마쳤다.

양당에서 이견이 없었던 만큼 법 제정 기대감이 높았지만,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등 정쟁으로 얼룩진 극한 대치 속 ‘여당의 입법폭주 반대’라는 명분아래 희생양이 되었다. 결국 한우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22대 국회 폐원으로 자동폐기 됐다. 그동안의 입법 활동을 정리한다.

## >> 2021.10



###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 공식화

2022년 제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으로 ‘한우산업 발전법 제정’ 공식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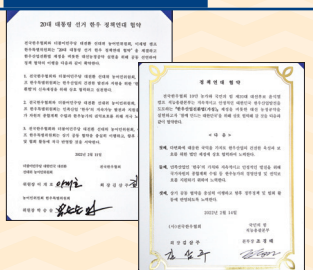
## >> 2022.1



### 한우법 추진 이사회 의결

코로나19로 인한 화상 이사회에서 한우산업안정(전환)법 제정 추진 의결.

## >> 2022.2



### 이재명,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협약

양당 유력 대선 주자와 한우정책협약을 맺으면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기로 함.

## >> 2014.8



### ‘한우산업발전법’ 발의

‘한우산업발전법’을 박민수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법안 폐기.

## >> 2021.5



### ‘한우법’ 필요 공론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국회의원 50여명과 면담 추진 ‘한우산업 발전법’ 제정 필요성 피력.

## >> 2022.7.12



### 민주당 한우법 발의

이원택 의원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을 대표발의.

## >> 2022.11



###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현장토론회

현장 의견을 수렴한 입법을 통해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토대 마련.



>> 2022.12



### 대전한 시대 한우산업의 길을 묻다

한우산업이 어려울 때 제시되는 정부 정책은 일시적  
이므로 법으로 규정된 한우법 필요성 공감대.

>> 2022.12.21



### 국민의힘 한우법 발의

홍문표 의원은 한우 유전자원의 보전 및 실질적 지원  
을 골자로 하는 '한우산업 기본법' 대표발의.



>> 2023.2



### 출입기자간담회

소값회복 등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과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 형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 2023.3



### 공중파 방송 호소

임미애 경북도의원(現제 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MBC 사생결담에 출연하여 한우법 필요성 강조.

>> 2023.3



### 한우법 제정 동의 서명운동

지역별 국회의원이 한우법 제정 동의서를 접수했다.  
여야를 망라하고 총 65명이 서명했다.

>> 2023.5



### 민주당 이원택 의원 국회토론회

한우 중소농 보호, 토종가축 보전, 탄소중립 지원 등  
의 근거를 담기 위한 법률 필요성 공감대.



>> 2023.6



### 민주당 어기구 의원 국회토론회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구축을 위한 조속한 한우법을  
제정 및 예산 확보 필요성을 국회차원에서 논의.

>> 2023.7



### 국민의힘 당대표 간담회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에게 한우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당차원의 통과 협조 요청.

>> 2023.8



### 기자회견 및 여야합동토론회

'한우법엔 여야가 없다' 여야 양당 국회의원이 한우법  
제정에 합심으로 통과시키자며 의기투합.

>> 2023.12



### 대안법으로 법안소위 통과

대치정국 속 농해수위원장의 대안법 상정 야당인 민  
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까지 의결.



>> 2024.4



### 한우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의 직회부 의결됨.

>> 2024.5



### 한우법 제정 국회본청 결의대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폐기.





# 한우법 통과 및 농축산물가격안정제 도입 국회 결의대회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24일, 바쁜 농번기에 모든 일손을 놓은 채 비장한 각오로 국회 본청 앞에 모여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제 22대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당선인(경기 안산병), 비례대표 임미애 당선인도 자리를 같이 했다.

특히 법안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한우법은 한우농가의 생존권이다”며 “농민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연대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경천 회장은 “한우 자급률이 30%대인 상황에서 한우 사육마릿수가 많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며 “정부의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과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가 소를 먹는 게 아니라 농장을 집어 삼키고 있을 정도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세계 유일무이 특별한 유전자원인 우리 한우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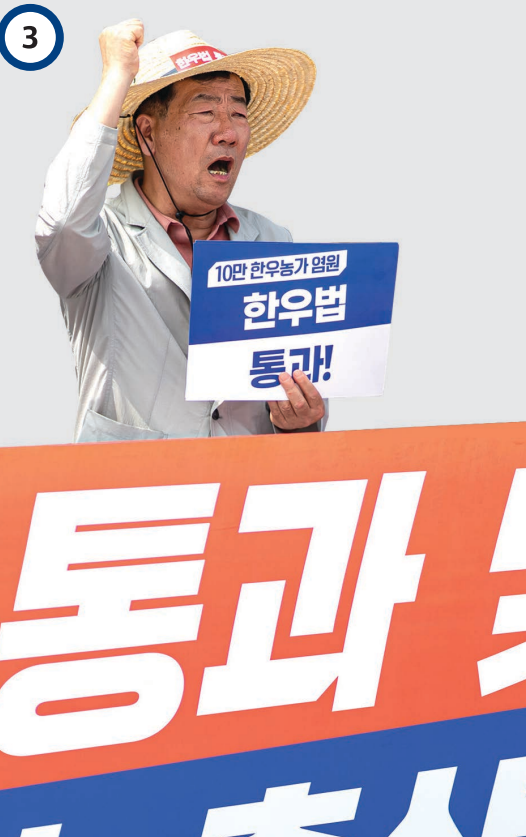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한우농가가 보여준 뜨거운 외침은 선명했지만, 결국 하루만에 대통령 거부권과 국회 폐원으로 인한 법안 폐기라는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 이후 한동안 다양한 농가 커뮤니티에서 한우법 좌절 소식을 접한 한우농가의 분노와 무력감이 목격됐다. 지면을 통해 고군분투한 마지막 용사들을 기억한다.

- 1 한우법 통과 피켓을 들고 있는 중앙회 회장단.
- 2 한우법을 발의하고 결의대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 3 한우법 통과를 외치고 있는 민경천 회장.
- 4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김상민 강원도지회 사무국장과 김강수 대구경북도지회 사무국장.
- 5 22대 비례대표 임미애 국회의원은 흑여 한우법 제정 좌절시 22대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6 한우농가에 응원을 보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7 한우법 통과를 외치는 울산시지회.
- 8 결의에 찬 전북도지회의 단합된 모습.





## - 결의문 -

오늘 우리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해 바쁜 농번기인 지금 이 때, 모든 일손을 놓은 채 비장한 각오로 여기 국회 본청 앞에 모였다.

우리 농축산인들은 그간 각 국과의 FTA 및 세계 개방화 추진 속에서 국가의 별다른 보호와 발전계획 없이 국가를 위해 희생되어 왔다. FTA 국회 비준 당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FTA피해 보전직불금은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수입기여도로 인한 보전금이 터무니없이 낮지만, 이조차 2025년 일몰을 앞두고 있을 뿐이다.

특히,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기상이후로 인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면서 타 국가들은 식량 안보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반면, 지금의 윤정부는 물가안정을 빌미로 수입전량에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유례없는 조치 등 농축산물 수입 의존에 지나치게 치중해 국내 생산기반은 품목



을 막론하고 모두 무너지고 있다. 현재 한우산업은 생산비 폭등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1두당 약 300여만원의 빚을 지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 현재도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의 50%를 넘는 미국은 2026년 관세가 철폐되며, 호주는 2028년, 캐나다는 2029년 관세 철폐를 앞두고 있어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가올 관세 철폐와 한우농가 보호 및 한우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2022년 국회 여야당에서 모두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대안법으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이 상정되어 있다.

이 법은 축산법은 기본법으로 두되, 각 축종의 여건에 맞는 별도의 법을 진흥법으로 제정해 축종 간 갈등을 오히려 해소할 수 있으며, 한우 중장기 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적정 두수를 위한 탄소저감 지원 등 관세철폐 이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

해선 농가에게 꼭 필요한 법이다. 이에, 여야 정쟁에서 벗어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필히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빈번해지는 농축산물의 재해와 수급불안정으로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

지고 있으며, 농업소득은 농가별 연평균 9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농가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고물가시대 수입 농축산물 관세 감면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이로 인한 직격탄은 고스란히 농가가 피해 보고 있다.

이에, 양곡, 채소, 과일, 축산물 등 주요 농축산



물의 경우 어떤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인 재생산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비를 보장하는 정책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모인 우리 농축산인들은 정부와 국회에 요

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진정 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농축산인들의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 정부를 비롯해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하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라!**

**하나. 주요 농축산물 포함한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즉각 도입하라!**

2024. 5. 24.

'한우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전국 농축산인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 한우법 통과

## 국회 릴레이 1인 시위



민경천 회장



한양수 부회장



최창열 부회장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



정윤섭 전북도지회장

※ 협회 홈페이지 사진게시판에서 원본사진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인철 울산시지회장



이연묵 서울인천경기도지회장



조만희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



중앙회 조득래 이사 (경북)



중앙회 정무정 이사 (강원)



중앙회 이재은 이사 (경기)



대전세종충남도지회



서울인천경기도지회



강원도지회



### ● 서울인천경기도지회

이연묵 지회장, 이재은 중앙회 이사, 장석명 양평군지부장, 민민호 가평군지부장, 윤용성 강화군지부장, 김정일 前김포시지부장(한우자조금 부위원장), 이대균 여주시지부장

### ● 강원도지회

정무정 중앙회 이사, 김영록/김용관 부지회장, 김상민 도지회사무국장

### ● 대전세종충남도지회

조만희 도지회장, 이관우 당진시부지부장, 김경석 보령시지부장, 윤방현/강일구 당진시지부이사

### ● 전북도지회

정윤섭 지회장, 한양수 부회장, 이근수 前전북도지회장(前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 ● 대구경북도지회

장성대 지회장, 조득래 중앙회 이사

### ● 부산경남도지회

최창열 부회장

### ● 울산시지회

정인철 지회장, 최부걸 서울산지부장



# 한우농가, 정부의 멋대로 행정 한우법 제정으로 극복하려 했지만...

## 한우법 추진의 함의 그리고 앞으로의 운동 방향에 대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법)이 우여곡절 끝에 5월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월 29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하루만에 폐기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동안 한우산업과 한우농가, 한우관련 전후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한우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담은 이번 법안을 통해 한우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한우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한우법 제정 운동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재민  
농장파식탁 편집장

### 한우협회는 왜 한우법이 필요했을까?

한우는 1984년~1989, 1995년~2000년, 2011년~2015년 총 3번의 한우파동을 겪었다. 1~2차 한우파동은 한우농가를 대표하는 협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3차 파동은 한우협회가 설립되고, 자조금 사업까지 실시할 때 맞이했기 때문에 너무나 뼈아픈 상황이었다. 3차 한우파동을 겪으면서 한우지도자들은 4번째 파동은 겪어서는 안된다며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여러 준비를 하게 된다.

2018년 한우협회는 3~4년 이후에 한우사육두수가 적정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며 선제적 수급조절사업을 자조금으로 추진키로 결의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예산을 승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로 막았고 2020년 한우 사육두수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자 그제야 수급조절사업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값이 정점에 있는 상황에서 암소 도축에 협조할 농가는 별로 없었고, 암소감축사업은 2020년~2022년까지 진행했지만, 별 소득 없이 소값하락을 막아내지 못했다. 사육두수가 정점에

있을 때가 아닌 정점에 오르기 전에 두수 조절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수급조절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 것이다.

그리고 2022년 11월 한우 가격은 급락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악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비육우 한 마리 출하할 때 마다 140만원을 손해보는 일을 농가들은 경험하고 있다.

### 너무나 막강한 정부의 재량

4차 한우파동은 민간(한우협)에서 요구한 것과 같이 2018년 수급조절사업을 시행했다면 송아지 생산두수가 조금씩 감소하면서 2022 소값 안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당초 한우협회는 정부에 별도의 수급조절 자금을 요청하지 않고 자조금을 활용해 매년 2~3만두의 암송아지를 줄여나가는 안을 제안했다. 자조금은 농가들이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자율의 수급조절사업으로 손색이 없었다.



‘가축’사육 공통점 빼곤  
축종별 특성과 산업구조 달라

축산법을 기본법으로  
각 축종별 산업 발전법 필요

비대한 정부재량권, 그러나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어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조금사업에 대한 심의권한을 이용해 이를 가로 막았다. 즉 자조금 예산 중 수급조절사업 관련 예산의 집행을 승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2020년 상반기까지 해당 자금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개별 자조금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부여한 것은 2006년 자조금법을 개정하면서부터로 사실상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재량적 집행이라 할지라도 축산단체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야 문제가 없지만, 제4차 한우파동을 불러온 정부의 수급조절사업 집행 보류 사태에서 알수 있듯이 피해는 농가들이 입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소 한 마리 출하할때마다 140만원 손해를 보고 있으니 2023년에만 1조 4000억원대의 손실을 농가들이 입은 희대의 사건이지만 수급조절 방해와 관련해 당시 담당계장, 과장, 국장 중 책임을 진 이는 아무도 없다.

자조금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부담하지만, 정부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우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0년 도입된 송아지안정제의 경우도 2012년 3차 한우파동 당시 수급조절 자금을 지원 하는 대신 발동되지 못하도록 개악을 저지른 이후 다시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2016년부터 해오고 있지만 4차 한우파동으로 번식농가들이 줄폐업 하고 있는 지금까지 개정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한우농가들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바로 준칙에 의거해 한우산업이 굴러 갈수 있도록 한우산업만을 위한 제도, 법을 만들어 보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 개혁을 가로 막는 정부

한우법에는 특별한 것을 담지 않았다. 다만 관련한 내용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정부가 의지나 재량에 따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들이 많았으나, 한우법 안에 이를 두루 담다 보니 각종 사업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었을 뿐이다.

법률로 한우농가와 산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 이유는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정부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농가의 이익과 반대로 정책을 펴거나 농가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정부의 재량권을 활용해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자신들의 재량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수도 없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해 보자는게 한우

법 입법 정신임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신들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고 개혁을 가로 막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품목에는 이러한 법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 이유를 달았다. 하지만 낙농진흥법, 양봉진흥법, 말산업진흥법 등 여러 품목법률이 존재하고 있고, 축산계열화법은 계열화 달성율이 90%를 넘어선 육계와 육용오리산업 법임을 감안하면, 한우와 양돈만이 법이 없는 것이 된다.

### 수급조절 골든타임 농처 과오 인정하지 않는 정부

정책·제도 명확화 ‘한우법 제정’  
낙농·양봉·말·오리·닭 법령 존재

오히려 형평성 어긋나는 건 ‘한우’  
차기 대통령 선거 면밀히 준비해야

### 앞으로의 과제

한우산업을 비롯한 축산업은 안으로는 방역과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밖으로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관세화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10년마다 반복해 발생하는 한우파동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축산정책은 2-3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비 전문가들에게 맡겨 놓고 있으며, 이들은 축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을 위한 책임감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축산행정이 역주행 하는

사이 한우를 비롯한 축산 주요 품목은 농업에서 치지하는 생산액 비중이 절반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 전문화, 규모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정부의 축산행정은 과거의 구습을 답습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공무원 재량에 맡겨진 상황이어서 이를 보완할 조치들이 필요하다. 단순히 한우법안 품목법안 하나 통과되었다고 해서 바뀔 것은 별로 없다.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한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 ① 인적자원 선진화

한우를 비롯한 축산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축산직 공무원이 필요하다. 축산직 공무원은 현재 지방직에서만 선발되고 있는데 중앙부처인 농식품부에서 축산직이 필요하며, 방역담당, 환경담당, 동물복지담당 등 다양한 전문가를 수혈할 수 있도록 종류도 다양화 해야 한다.

### ② 축산행정조직 선진화

축산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진흥하는 가칭 축산수의방역청 설치가 필요로 한다. 산림

행정이 산림청으로 일원화되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수준의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것처럼 축산행정도 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해 축산수의방역청 신설을 통해 전문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③ 축산관련 법령 재정비

마지막으로 축산법령의 대 수술이 필요하다. 현재 방역, 축산물위생, 환경, 축산법 등 기능 중심의 법률을 기본법으로 두고, 각 품목과 축종에 맞는 품목법을 만들어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각 품목에 맞게 법률을 신속하게 개정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

### ④ 대통령 선거 기점 개혁 착수

한때 농식품부 내에 있던 수산행정업무와 조직 그리고 인원이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이관되었는데, 수산단체는 이를 위해 5년여를 준비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실행에 옮긴바 있다.

축산업계도 축산행정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서는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세가지 혁신안을 치밀하게 준비해 차기 대선에서 축산업의 규모와 위상에 맞는 인적자원, 행정조직개편, 제도정비를 일률적으로 이뤄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선은 3년 뒤에 시작되지만, 각 당의 후보자 선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2년도 남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





# “ 한우농가 권익 보호에 타협은 없다 ”

과감한 리더십으로 한우농가 대표할 것  
한우법, 완성도 높여 22대 국회 재추진

민경천 회장



“지난 6년간 수행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직은  
정부와 협회, 농협 간 협치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생산자 단체장이 된 지금은 오로지  
한우농가 하나만 보고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농가 피해와 권익침해 상황에선 타협이란 없다”

민경천 회장의 취임 100일 일성이다.



## “한우에서 태어난 소만 한우로 인정”

### 한우법 미비점 보완 제정 재추진



우리 협회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된 지난 5월 28일 민경천 회장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껏 고무된 분위기 속에 출입기자 간담회가 진행됐다. 하지만 다음날, 하루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우법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와 관련 민경천 회장은 “지역을 순회하며 한우농가 의견을 종합해 그동안의 미흡했던 부분의 점검이 우선이다”면서 “22대 국회에서 한우법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우법 재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이사회 등 지도자 의견을 수렴하여 재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전제했다.

특히, 재추진되는 한우법에는 ‘한우에서 생산된 송아지만 한우로 인정한다’는 ‘한우’의 정의를 삽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우농가는 미경산우비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급조절에 나서는데, 낙농에서 한우수정란을 생산하는 현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 정부 무대책 방임· 농협 관망 6월 농쟁으로 응징해야

민경천 회장은 기자간담회 내내 강한 어조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한우산업을 위한 정책 부재를 지적하며 “수차례 정부가 목표 자급률 내지 소비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수급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답이 없다”며 정부의 무대책 방임 태도를 꾸짖었다.

그러면서 농협에게도 “부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취가격이 떨어지는데 높여보려는 노력이나 해봤나”라며 일갈했다. 이어 “농협중앙회 앞 6월 농쟁 집회는 물론, 10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농협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감추는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 공판장 및 민간 도축장별 근출 혈 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농가의 선택권을 넓히고 농가가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부분 등 피해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다.

농협은 제반비용의 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우농가 적자와 폐업농가가 늘고 있는 지금, 농민이 세운 농협의 도축비 인상을 단행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한우농가의 공통된 분위기다. 협회는 농협의 서비스 대상자이자 수요자가 농가인데 아무런 협의 없이 통보식의 소통방식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경천 회장은 “정부가 아무것도 안하고 농협은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며 “6월 농쟁으로 우리의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합리적 가격 한우판매소 홍보 한우도소매가격 연동 도입 추진

이날 민경천 회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는 ‘서초동 한우카페’ 2호점인 방배점에서 진행됐다.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우알뜰판매점’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우리한우판매점이다.

협회는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국의 알뜰한우판매점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정육식당 및 식육판매점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도소매 한우가격 연동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경천 회장은 “사육현장에서선 사료가 소를 먹고 있는 형국이다. 농가는 죽어가는데 소비자들은 한우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유통단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우를 판매하고 있는 전국의 정육식당 등의 한우판매점을 발굴하여 적극 홍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우농가도 수입 쇠고기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육방법의 진화, 개량 등 꾸준한 교육과 계도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무대책  
농협은 농가 어려움 외면

6월 농쟁 추진  
한우인 결기 보여줘야



대한한우 사료 농가를 찾아서

## ‘지구 75바퀴’ 무사고 운전 기관사 대한한우사료로 ‘새로운 기록’에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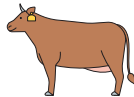
40여년 동안 철도공사에서 열차를 운전하던 문석길 기장은 2021년 6월 정년퇴직을 한 뒤 고속농장 대표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했다

11년 동안 낮에는 열차를 운전하고 새벽과 밤에는 한우농장을 운영해 온 문 대표는 퇴직을 기점으로 주업과 부업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기장 시절 무사고 운전거리 328만km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문 대표는 이제 한우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있다.

고속철도를 운행하던 그가 만드는 한우이야기, 고속농장의 이야기를 들으러 전남 담양으로 가보자.

### ☑ 농장 경영 체크 포인트

슈퍼우량암소 보유한  
개량 우수 농가



경영비 절감위해  
대한한우사료 선택



비타민, 첨가제, 대두박 등  
영양 충분히 공급



### 생시체중 60kg 육박하는 슈퍼 수송아지 탄생 후대검정으로 철저한 강선발 우량암소군 확보

#### 40여년 철도기관사→한우농가 ‘인생 2막’

문석길 대표는 기관사 시절 300만km 무사고 운행기록을 달성, 지구를 75바퀴, 서울에서 부산을 3,530회 운행한 기장으로 선정됐다. 매월 1만km씩 단 한건의 사고 없이 약 25년간 꾸준히 근무해야 이룰 수 있는 이 대기록을 세운 그는 철도 기관사로 40여 년을 살아왔다.

“27살에 기관사가 돼 비둘기, 통일호, 무궁화, 새마을 열차를 운전하면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다가 고속열차가 도입되고 자리를 옮겨 정년을 고속에서 마무리 했습니다. 2021년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40년 반 동안 무사고 운전거리는 328만km로 지구를 82바퀴 도는 격으로 철도역사 122년 동안 최초로 달성한 대기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 11년 전부터 한우를 키우기 시작한 문 대표는 퇴직과 동시에 고속농장 대표로 타이틀을 바꾸고 인생 2막을 시작했다.

“고속철도를 운전했으니 농장 이름도 고속농장이었습니다. 타고난 부지런함 때문인지 퇴직

을 하고 나서 한우만 키우니 시간이 남아 돌더라고요. 한우를 부지런히 키워보자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 생시체중 60kg, 슈퍼 송아지 탄생

2021년 6월 퇴직을 하고 바로 다음달 고속농장에서는 경사가 있었다.

생시체중 60kg에 육박하는 슈퍼 수송아지가 태어난 것, 일반 송아지들에 비해 2배가 넘는 슈퍼송아지가 탄생하면서 지역에서 고속농장은 유명세를 탔다.

“보유하고 있는 우량 암소 중 4산째 슈퍼 송아지를 분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간다는 한우 육종농가들의 송아지 평균 생시체중이 30kg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고속농장의 슈퍼 송아지 출산은 담양군은 물론 전남에서도 큰 경사였습니다.”

우량 암소의 기준은 후손을 도축하여 도체중 480kg(거세우 전국 평균 도체중 450kg) 이상, 등심단면적 110cm² 이상(전국 거세우 평균치 95





cm<sup>2</sup>) 육질등급 1\*\*B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가능하다. 또한 슈퍼 우량암소는 후대 축을 도축해 두 마리가 우량암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두 마리를 합산하여 도체중 평균 500키로 이상 등심단면적이 120cm<sup>2</sup>이상이 되어야 한다. “혈통등록은 한우개량에 있어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되는 사업입니다. 기관사로 일하면서도 처가가 있는 담양에 귀촌해 한우농장을 겸업

#### 고속농장 성공비결



으로 했는데 처음부터 한우개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우량 암소군을 만들고 개량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로 슈퍼 송아지를 분만하면서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현재 고속농장에는 슈퍼 우량 암소 1마리, 우량 암소 5마리를 갖고 있다. “도축성적과 혈통을 꼼꼼히 따져 개량을 합니다. 또한 후대검정으로 철저한 강선발을 거쳐 우량 암소군을 만듭니다. 개량은 성실하고 부지런함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사 생활을 할 때도 아내와 한우를 키웠는데 이제 한우만 열심히 키우고 있으니 더 잘해야 하는게 당연하죠.”

#### 대한한우 어린송아지 사료 우수 품질 인정

최근 대한한우사료가 담양지역에 들어오면서 문 대표는 육성사료와 송아지 사료를 구입, 농장에 도입했다. 슈퍼 우량암소를 갖고 있는 문 대표가 대한한우사료를 쓴다는 소문에 지역 한우농가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한우협회에서 사료를 만드는데 얼마나 정직하게 만들겠습니까. 한우농가로서 협회가 하는 사업에 적극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지

만 사실 담양지역에는 유통되지 않다가 담양에 대한한우사료가 들어온다기에 육성과 송아지 사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 대표는 대한한우사료 중에도 송아지 사료가 매우 우수하다며 칭찬을 늘어났다.

“송아지 사료는 입자가 가늘고 한눈에 보기도 좋더라고요. 가져와서 직접 급이해 보니 송아지들도 잘 먹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가격 면에서 도움이 되는 대한한우사료는 기존 사료가격보다 10%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얼마전에도 송아지 사료 40포를 실어왔는데 10% 이상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요. 저는 대두박이나 첨가제, 비타민, 칼슘을 충분히 쓰고 있어서 더욱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합니다. 원래 부업으로 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버릇이 돼서 당연한 일과가 됐습니다.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한우가격이 낮다, 생산비가 높다’ 한탄만 하면 안됩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는 한발 더 움직이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식우 위주로 사육하고 수송아지를 팔고 있는 문 대표는 앞으로 여력이 된다면 비육도 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한우산업이 어려운 때는 늘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 위기는 지나갑니다. 좋은 소를 제가 직접 키워서 출하하는 기쁨도 맛보고 싶습니다. 대한한우사료와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유통망 개선돼 많은 농가가 쓸 수 있기를

대한한우사료가 담양지역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대한한우사료를 선택했다는 문 대표는 유통부분이 아쉽다며 입을 뗐다. “담양에서 판매한 지 세달 정도 됐는데 그 전에 곡성군지부에서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송아지사료는 제가 담양군지부에 직접 가서 신고 오는데 가격 이점이 있습니다. 유통이 보다 원활해져서 많은 농가들이 대한한우사료를 쓰면 좋겠다 싶어요.” 유통과 함께 보관 등 관리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는 문 대표는 한우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는 요즘, 열심히 하면 한우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 슈퍼우량암소 보유 농가가 선택한 대한한우 사료 ‘주목’

#### 원활한 유통망-사료보관 등 관리에 신경써주길





품질만족&가격만족! 한우농가가 직접 생산하는  
농가생산비 절감 및 가격표준 역할!!

# 전국한우협회 고품질 대한한우 사료



## ◆ 대한한우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 비육 구분        |    | 어린이송아지        |     | 육성기   |     |     |     |     |     |     |     | 비 고   |
|--------------|----|---------------|-----|---|-----|-----|-----|-----|-----|-----|-----|---|
| 급여사료명        |    | 대한한우 어린이송아지   |     | 대한한우 육성   |     |     |     |     |     |     |     |   |
| 생후 월령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출하월령 30개월 이상  |
| 체중 (kg)      |    | 200           | 220 | 240   | 260 | 285 | 310 | 335 | 360 | 390 | 420 | 출하체중 810kg 이상   |
| 일당증체량 (kg)   |    | 0.8           |     | 0.8 - 1.0   |     |     |     |     |     |     |     | 0.88 kg   |
| 조사료          | 건초 | 2.0           | 2.0 | 자유채식  |     |     |     |     |     |     |     | [기타관리]<br>■ 비육축진제, 항생제 사용안함<br>■ 비육마무리 단계<br>-개체별 발육 차이를 고려해 출하시기 조절<br>■ 애정(사랑) 가득한 사양 관리 요망 |
|              | 볏짚 |               |     |   |     |     |     |     |     |     |     |   |
| 배합사료 급여량     |    | 3.0           | 4.0 | 4.0   | 4.0 | 4.5 | 4.5 | 5.0 | 5.5 | 6.0 | 7.0 |   |
| 단계별 사양관리 주의점 |    | ■ 설사 및 호흡기 예방 |     | ■ 가능하면 건초 자유급여<br>■ 반추위와 소화기관 발달시켜 튼튼한 비육밀소를 만들 (기초체형 형성) |     |     |     |     |     |     |     |   |
| 중요 포인트       |    | ■ 구세 버즘       |     | ■ 거세실시   ■ 음수조 철저 관리   ■ 미네랄 블록 급여                        |     |     |     |     |     |     |     |   |

| 비육 구분        |    | 비육전기  |     |      |      |      |      |      |      | 비육후기   |     |     |     |     |     |     |   | 비 고           |  |
|--------------|----|---|-----|------|------|------|------|------|------|--|-----|-----|-----|-----|-----|-----|---|---------------|--|
| 급여사료명        |    | 대한한우 전기   |     |      |      |      |      |      |      | 대한한우 후기  |     |     |     |     |     |     |   |               |  |
| 생후 월령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출하월령 30개월 이상  |               |  |
| 체중 (kg)      |    | 450   | 480 | 510  | 540  | 570  | 600  | 630  | 660  | 690  | 715 | 740 | 760 | 780 | 795 | 810 |   | 출하체중 810kg 이상 |  |
| 일당증체량 (kg)   |    | 1.0 - 1.2   |     |      |      |      |      |      |      | 0.6 - 0.8  |     |     |     |     |     |     |   | 0.88 kg       |  |
| 조사료          | 건초 | 2.0   | 2.0 | 1.0  |      |      |      |      |      |  |     |     |     |     |     |     | [기타관리]<br>■ 비육축진제, 항생제 사용안함<br>■ 비육마무리 단계<br>-개체별 발육 차이를 고려해 출하시기 조절<br>■ 애정(사랑) 가득한 사양 관리 요망 |               |  |
|              | 볏짚 | 1.0   | 1.0 | 1.0  | 2.0  | 2.0  | 2.0  | 2.0  | 2.0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               |  |
| 배합사료 급여량     |    | 8.0   | 9.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9.5 | 9.5 | 9.0 | 9.0 | 8.5 | 8.0 |   |               |  |
| 단계별 사양관리 주의점 |    | ■ 체성장 발달이 왕성한 시기로 충분한 사료급여에 의하여 골격과 근육성장이 충분히 발달되도록 하는 시기<br>■ 사료는 영양균형에 맞추어 정확히 급여<br>■ 근육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간간지방 최고, 피하지방 부착이 만들어지는 시기 |     |      |      |      |      |      |      | ■ 피하지방 최고, 근육내 지방부착 되어 지방교잡이 이루어져 육질이 마무리 되는 시기<br>■ 육색과 지방색을 위하여 녹색건초나 청초급여 금지<br>■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 |     |     |     |     |     |     |   |               |  |
| 중요 포인트       |    | ■ 우사내 환기 관리   ■ 요결석 관찰<br>■ 여름철 그늘막 설치 및 선풍기 가동   |     |      |      |      |      |      |      | ■ 생후 24개월령에 1차 초음파 측정 출하 2개월전에 2차 초음파 측정 (육량과 육질 조절)   |     |     |     |     |     |     |   |               |  |

## ◆ 대한한우 번식우 사양관리 프로그램

| 사육구분                    |       | 번식우육성<br>(반추위, 소화기관 완성기)           |     |     |     |     |     | 임신우   |     |     |     |  |     |     |     |   |     |     |     | 포유우                                   |     |     |
|-------------------------|-------|------------------------------------|-----|-----|-----|-----|-----|---|-----|-----|-----|--|-----|-----|-----|---|-----|-----|-----|---------------------------------------|-----|-----|
| 월령 (개월)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경산우   |     |     |     |   |     |     |     |                                       |     | 포유중 |
| 체중 (kg)                 |       | 190                                | 210 | 230 | 250 | 270 | 285 | 300   | 315 | 330 | 345 | 365  | 385 | 405 | 420 | 435   | 450 | 465 | 480 | 500                                   | 520 |     |
| 일당증체량 (kg)              |       | 0.6 - 0.8                          |     |     |     |     |     | 0.4 - 0.6   |     |     |     |  |     |     |     |   |     |     |     | 0.6                                   |     |     |
| 1일<br>사료<br>급여량<br>(kg) | 구분    | 번식용 중송아지                           |     |     |     |     |     | 임신우   |     |     |     |  |     |     |     |   |     |     |     | 임신우                                   |     |     |
|                         | 배합    | 3 - 4 kg                           |     |     |     |     |     | 3 - 4 kg  |     |     |     |  |     |     |     |   |     |     |     | 4 - 5 kg                              |     |     |
|                         | 조사료   | 조사료는 자유채식<br>(가능하면 양질의 조사료 급여)     |     |     |     |     |     | 조사료는 자유채식   |     |     |     |  |     |     |     |   |     |     |     | 조사료는<br>자유채식                          |     |     |
|                         | 증감 요인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br>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     |     |     |     |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 10%정도 증가시켜 줄 것<br>임신 7개월부터 10% 증가                |     |     |     |  |     |     |     |   |     |     |     | 겨울철(혹한기)과<br>환절기에는 10% 정도<br>증가시켜 줄 것 |     |     |
| 단계별<br>사양관리<br>주의점      |       | ■ 소화기와 반추위 등을<br>발달시켜 튼튼한 밀소를 만들   |     |     |     |     |     | ■ 발정과 수정율을<br>높이기 위하여<br>생식기에 지방<br>침착되지 않도록<br>노력하는 것이<br>바람직함 |     |     |     | ■ 전체적으로 과비가 되지 않도록 운동을 충분히<br>시키며 영양의 불균형이 없도록 할 것.<br>■ 임신초기에 영양균형을 맞추어 주면 송아지때<br>설사를 방지할 수 있음 |     |     |     | ■ 다음 발정과 수정을<br>위하여 비타민과<br>미네랄을 충분히<br>급여할 것 |     |     |     |                                       |     |     |

## 대한한우 어린이송아지

적용범위  
2개월~7개월

- 미아리산과 탄닌 함유에 의한 고창증과 설사 예방
- 천연물질에 의한 항병력 강화
- 반추미생물과 효모제 강화
- 식이섬유와 비타민/미네랄 강화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
- 대용유함유에 의한 빠른 입붙이기

| 구분     | 조단백  | 조지방 | 조섬유  | 조회분  | 칼슘  | 인   | TDN  |
|--------|------|-----|------|------|-----|-----|------|
| 어린이송아지 | 20.0 | 2.5 | 20.0 | 10.0 | 0.9 | 1.5 | 70.0 |



## 대한한우 번식우

적용범위  
13개월~임신우

- 발정과 수태율 최적을 위한 충분한 영양소 공급
- 번식전용 비타민/미네랄 설계
- 황토급여에 의한 미네랄 보충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구분  | 조단백  | 조지방 | 조섬유  | 조회분  | 칼슘  | 인   | TDN  |
|-----|------|-----|------|------|-----|-----|------|
| 번식우 | 14.0 | 2.0 | 15.0 | 15.0 | 0.8 | 1.2 | 6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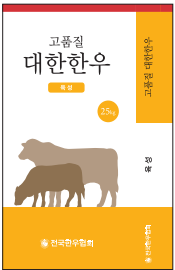


## 대한한우 육성기

적용범위  
8개월~15개월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골격과 내장의 발달을 촉진
- 적정에너지 공급
- 섬유소 공급에 의한 반추위와 소화기관 안정화
- 높은 수준의 비타민과 균형 있는 미네랄 공급

| 구분  | 조단백  | 조지방 | 조섬유  | 조회분  | 칼슘  | 인   | TDN  |
|-----|------|-----|------|------|-----|-----|------|
| 육성기 | 15.0 | 2.5 | 20.0 | 15.0 | 0.7 | 1.2 | 7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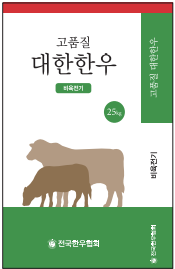


## 대한한우 비육전기

적용범위  
16개월~23개월

- 반추위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 최대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 향상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비육효과를 최대로 발현시키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필요

| 구분   | 조단백  | 조지방 | 조섬유  | 조회분  | 칼슘  | 인   | TDN  |
|------|------|-----|------|------|-----|-----|------|
| 비육전기 | 13.0 | 2.5 | 20.0 | 15.0 | 0.7 | 1.2 | 73.0 |



## 대한한우 비육후기

적용범위  
24개월~30개월

- 근육내 지방 발달 극대화로 육질 향상
-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 있는 배합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고급육 효과를 최대 발현시키기 위하여 TDN을 높여 줌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을 향상
- 과비방지

| 구분   | 조단백  | 조지방 | 조섬유  | 조회분  | 칼슘  | 인   | TDN  |
|------|------|-----|------|------|-----|-----|------|
| 비육후기 | 12.0 | 2.5 | 20.0 | 15.0 | 0.7 | 1.2 | 75.0 |



전국한우협회

문의처 : 02-525-1053 팩스 : 02-525-1054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9, 제2축산회관 2층

생산비 절감 / 사료가격 투명화 / 고품질 합리적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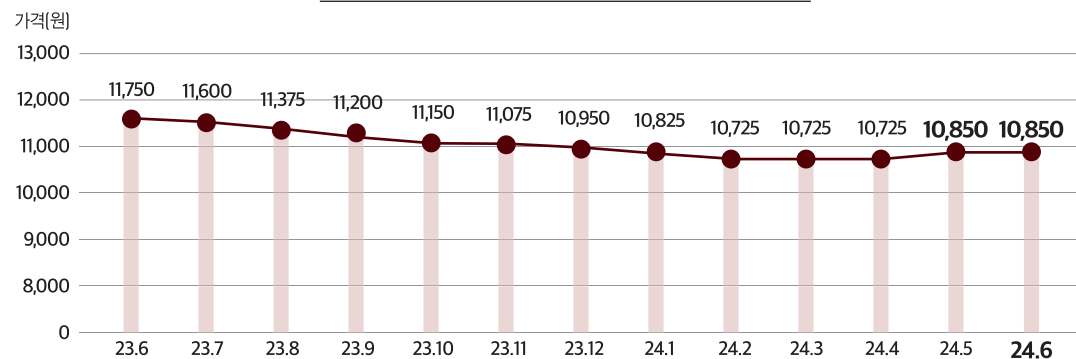
# 협회 전용사료 '대한한우'

2024년 6월 대한한우 사료 가격 안내

공장출고가 기준(운송비 등 추가비용 미반영)

|  |   |   |  |   |
|--|---|---|--|---|
| <br>대한한우<br>어린송아지사료<br>2-6개월<br>25kg<br>대한한우협회 | <br>고품질<br>대한한우<br>번식<br>25kg<br>대한한우협회 | <br>고품질<br>대한한우<br>육성<br>25kg<br>대한한우협회 | <br>고품질<br>대한한우<br>비육전기<br>25kg<br>대한한우협회 | <br>고품질<br>대한한우<br>비육후기<br>25kg<br>대한한우협회 |
| 어린송아지<br>14,375<br>벌크(kg/원) 559  | 번식우<br>10,625<br>벌크(kg/원) 409   | 육성<br>10,850<br>벌크(kg/원) 418  | 비육전기<br>11,050<br>벌크(kg/원) 426   | 비육후기<br>11,175<br>벌크(kg/원) 431  |

대한한우 사료 가격 변동 추이(육성우 기준)



※ OEM 생산 협회전용사료는 환율 및 곡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매일 1일 기준가격이 변동됩니다.

문의 ☎ 02-525-1053 (내선 208)

## 전국한우협회 채널추가 안내



QR코드로 친구추가

한우산업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 ✓ 농가 소식지 한우마당 뉴스
- ✓ 한우산업 정책·제도·사업 동향
- ✓ 협회 활동 사항 및 행사 정보
- ✓ 기타 회원 전용 서비스 제공



전국한우협회





2023 한우능력평가대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상 수상

김정란 한우샘농장 대표

맑은 물이 계속 솟구쳐 나오는 샘.  
한우샘농장은 좋은 한우가 끊임없이 샘물처럼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전남 화순의 한우 잘 키우기로 이름난 ‘한우명가’ 한우샘농장은 지역에서는 유명한 ‘한우엄마’ 김정란 대표와 ‘김정란 신랑’이라고 불려 달라는 최근용 대표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계획교배를 포함한 개량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최근용 대표와 밤낮으로 소를 돌보며 사양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란 대표가 2인 1조로 움직이고 있는 한우샘농장을 직접 찾아, 개량과 한우관리의 모든 것을 들어봤다.

### 부업삼아 시작...250마리 일관사육 성장

경남 창원에서 자동차 관련 대기업에 근무하던 최근용 대표는 광주에 신공장 증축 소식과 함께 처가가 있는 화순에 터를 잡았다. 시골에서 사니 환경은 좋았지만 외벌이로 아이들을 키우려다보니 부지런한 최 대표 부부는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부업을 시작했다.  
“우선 한우 세 마리를 사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출근하고 나서 아내가 혼자 키우다 보니 오히려 적은 규모는 일만 많고 수익이 안되더라구요. 분노를 처리하고 바닥관리를 하는 것도 일정정도 사육규모가 있는게 낫겠다는 생각에 농장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업으로 시작한 농장은 30년 만에 암소 세 마리에서 250마리 일관사육 농장으로 성장했다. 모두가 김정란·최근용 대표의 피땀으로 일군 세월이었다.



생체중 938kg, 도체중 598kg

등심단면적 143cm² 기록

후대검정 성적부진 암소혈통 전체 도태  
강선발로 우량암소 군단 조성

### 체형→육질→일관사육 ‘개량에 눈을 뜨다’

“농장을 이전하기 전에는 마릿수를 늘려서 농장 규모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니다. 그런데 농장규모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좋은 소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한 최 대표는 처음에는 체형 위주로 개량을 시작했다.  
“큰 소가 돈이 되니까 일단은 체형을 키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큰소 위주로 개량을 하다보니 육질을 개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돈이 되더라구요.”

2008년부터 본격적인 일관사육을 시작한 최 대표는 농장에서 낳은 송아지를 키우고 이 소들을 출하하면서 자연스럽게 후대검정을 하게 됐다.

“내가 키운 소에서 나온 송아지가 어떤 성적을 내는지 보다보니 농장의 개량 방향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당장의 수입보다는 멀리 보고 개량을 하면서 좋은 소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니 개량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성적부진 암소혈통 전체 도태...도축장으로

“개량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등급별 경락단가 차이가 크지 않아 1++만 나오면 좋은 소라고 했습니다. 일관사육을 해서 소를 출하하면 결과가 좀 더 뚜렷했지더라구요. 검증된 결과를 보고 모계를 추적해 성적이 잘 나온 암소혈통, 도체중이 좋은 암소혈통을 두고 나머지는 모두 도태하기 시작했습니다.”







## 개량·사양관리 '2인1조' 업무 분장 소 키우는 비결... '그저 부지런했을 뿐' 당장 수익보다 멀리보고 개량방향 설정 좋은 소가 위기를 이겨내는 힘



엄청난 강선발이었다. 최 대표는 후대 검정을 통해 암소 집단에서 성적이 부진하면 그 혈통 전체를 도태시키는 방식으로 우량암소군단을 만들었다.

“성적이 부진한 암소 한 마리만 빼는 것이 아니라 그 혈통 전체를 드러냈어요. 강선발만이 우량암소군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 대표는 도태한 암소 혈통을 우시장에 파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으로 바로 보냈다는 것이다.

“내 맘에 안드는 소를 남에게 파는 것은 양심에 걸렸어요. 아예 도축장으로 빼버렸습니다.” 눈높이는 계속해서 높아졌다. 후대검정 뿐 아니라 높아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암소도 걸러내면서 한우샘농장만의 우량암소군을 만들어냈다.

### 철저한 기록·사양관리로 육종농가 선정

“어느 정도 우량암소군이 형성됐다고 생각하니 육종농가에 도전해야겠더라구요. 일관사육을 하다보니 검정이나 씨수소 생산 측면에서는 육종농가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종농가로 선정되면서 씨수소를 생산으로

개량의 방향을 잡고 번식 위주로 농장을 꾸려나갔다.

“기록관리가 중요하죠. 육종농가 전용 사이트에서 기본데이터를 받지만 아내가 세심한 부분부터 한우 한 마리 한 마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한 농장의 데이터가 빛을 발했습니다.”

능력검정과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외모와 질병 등 결격사유가 없는 당대 검정우 중 유전능력 상위 순으로 선발하는 후보씨수소 선발을 위해 노력했다.

안팎으로 노력한 결과 씨수소가 선정됐고 크고 작은 상을 받으며 한우샘농장의 능력이 증명되기 시작했다. ‘화순 자연속愛 한우’가 2013년 장흥축협 가축시장에서 열린 제32회 전라남도 한우경진대회 처녀소(미경산우)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지역 경진대회에서 경산우, 미경산우 할 것 없이 상을 많이 땀습니다. 어느정도 증명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내가 원하는 소, 마음 속에 품고 그려내

“시간이 지나면 소는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소를 그리고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 대표는 원하는 한우의 모양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 모양에 맞춰서 소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왔다고 말했다.

“농장에서 자질이 부족한 것은 과감하게 도태하면서 전체적인 농장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셋인 김정란 대표는 “아이를 하나 낳을 때마다 축사를 한 동씩 늘렸다”며 “남편과 함께 일궈온 한우농장은 우리 가족의 역사”라고 말했다.

소를 잘 키우는 비결을 묻자 최 대표는 고생해온 아내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그저 부지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저는 지역에서 이름도 모릅니다. ‘김정란 신랑’이라고 하면 알지요.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의 위치까지 농장을 일군 것은 오로지 아내의 공입니다. 부지런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정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최 대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부지런하게 좋은 소를 키울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요즘 한우가격이 폭락하고 있어서 소를 키워 돈을 버는게 아니라 돈을 붙여서 출하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소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소가 백 마리 있어도 다 같은 소가 아니니까요. 돈 벌어주는 소가 있는지, 그런 소가 얼마나 있는지가 그 농장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온다는 최 대표는 위기를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좋은 소가 위기를 이겨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위기에는 좋은 소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출하를 했는데 같은 1++, No.9이어도 등심단면적이 큰 소가 경락가격에서 kg당 1만 원 이상 높게 받았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낸다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66

## 돈 벌어주는 소가 있는지, 그런 소가 얼마나 있는지가 그 농장의 경쟁력

99





대구경북도지회

## 임원단 연석회의-사료가격 운영협의체 등 새로운 수장 '개혁적인 행보' 눈길

24개 시군지부, 회원 8,000명

본회 창립과 동시에 문을 연 대구경북도지회는 명실상부 한우협회 최대 도지회로 24개 시군지부 회원 8,000명의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회원 수만으로도 압도적인 대구경북도지회는 최근 새로운 인물을 수장으로 맞이하면서 임원단 연석회의 개최, 사료 가격 운영 협의체 등을 운영하는 등 개혁적인 행보로 눈길을 받고 있다. 새로운 인물로 무장하고 발 빠르게 뛰고 있는 대구경북도지회를 직접 찾아가 봤다.

대구경북도지회 회장단  
이취임식



대구경북도지회 시군지부장 연석회의

대구경북도지회 조직도(2024.6.1기준)



### 경북도, 전국 한우의 22% 사육 최대 한우 산지

경북도는 전국 한우의 22%인 76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한우 산지다. 한우 옹도로 불리는 경북도는 '한우 산업 정책은 경북도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우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걸맞게 한우암소유전체분석사업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1년부터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우 1만1,000마리 이상의 암소에 대해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저능력미경산우비육지원사업의 경우 유전체분석사업과 연계하여 유전능력하위개체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는 전국적인 한우 사육마릿수 급증에 따라 가격 폭락이 우려됐던 2022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경산우 비육생산 장려금을 12억5,000만 원(2,500두/두당 50만원)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14억(2,800두)의 사업비를 편성해 지원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의 경우 우량한 암소의 수정란을 이식하여 한우 개량 촉진하고 있으며 한우암소능력개량사업, 환경개선장비·한우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도지회 김강수 사무국장  
장성대 지회장







경북도청 방문, 한우육성지원조례 개정 등 한우농가 지원을 위한 3가지 제안 건의

### ‘새로운 수장’ 장성대 도지회장 선출

대구경북도지회는 지난 2월 2일 (주)참품한우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장성대 전 도지회 사무국장을 제 9대 대구경북도지회장으로, 서진동·김중상 씨를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은 취임사에서 “경북도지회는 항상 한우산업과 한우협회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에 앞장섰다”며 “지금의 한우산업 위기 또한 경북을 중심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 활동을 확대해 한우협회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 연석회의 부활 등 내외부 소통 강화

장 도지회장은 이취임식 이후 바로 경북 영주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시·군지부장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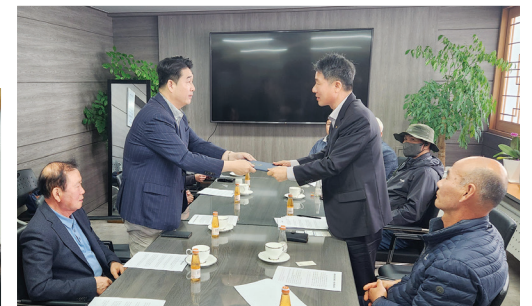
석회의를 개최했다.

대구경북의 시·군지부장들은 시설비 부담, 감염 매개체의 종류를 비롯해 림피스킨 접종 후 면역력 조사 실적과 약제 선택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을 들었다. 또 중소 농가에 지원하는 소독설비 예산 증액, 기립 불능우 도축 시 진단서 발급 간소화 등 현실에서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건의했다.

이어 장 도지회장은 취임 후 2개월 동안 관련 부처별 정책 활동 보고에서 미경산 비육지원 사업 확대와 함께 50마리 이상 전업농에게도 구제역 백신을 무상 공급할 것, 구제역·림피스킨 백신을 공수의가 접종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축사 울타리 설치와 소독시설 완화의 법률제도 개선과 함께 한우농가 경영 안정화 중



농협고령축산물공판장 항의방문, 도축수수료 인상 반대



농협사료경북지사 항의방문, 사료가격 인하 요구

### 시·군지부장 연석회의 각 지역별 순회… 소통·정보교류

점 예산 편성, 보조사업 추경예산 확보, 한우육성지원 조례 개정과 협의회 부활, 차기 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정책 현안 보고 등을 건의했다.

장 도지회장은 “앞으로 시·군지부장 연석회의를 각 지역별로 순회 실시함으로써 소통과 정보교류를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장의 애로와 의견을 청취해 지자체와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정책반영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우번지 경북, 농협 압박 선포

장 도지회장은 취임 이후 계속 추락하고 있는 소값과 생산비 폭등에 따른 농가들의 애환을 대변하기 위한 바쁜 일정을 이어나갔다.

지난 4월 1일 농협사료에 방문을 통해 사료가격 인하를 요구한데 이어 지난 4월 26일에는 대구경북도지회 임원들과 함께 농협고령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해 최근 거론되고 있는 도축수수료 인상에 항의하며 현 실정을 감안해 도축수수료 인상을 반대하는 한우인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수도료, 전기료, 인건비 등 인상요인이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한우인의 마음을 함께하는 뜻으로 수수료 인상을 잠정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도지회장은 “이번 도축수수료 인상은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한 처사로 당장 취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농협과의 어떠한 협업도 없을 것이며 공판장 출하 저지와 대규모 궤기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인터뷰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

## “성과위주의 도지회 만들겠다”



“도지회장은 참 무서운 자리입니다. 1만 8,000명의 한우농가가 바라보고 있는 자리인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한우농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늘 대구경북도지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는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은 한우산업의 위기가 거론되는 이 시점에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진 것에 대해 ‘어차피 적자를 볼 시기인데 농장은 포기하고 의미있는 일을 하려고 나왔다’며 호탕한 대답을 내놨다.

취임 이후 하루도 쉬지 않는 발빠른 행보로 한우산업의 위기척결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장 도지회를 직접 만나봤다.

### 행정중심 정책방향, 의회 중심으로 전환

행정중심의 정책 방향을 의회중심으로 전환해 한우산업의 예산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한우농가에 실질적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의회와 소통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도지회가 지자체의 한우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중심이었다면 정책을 만드는 의회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정치인에게 전달하고 이들이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도지회가 한정된 파이를 골고루 배분하는 집행에 집중하는 행정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파이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도울 수 있는 의회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장성대 도지회장은 의회와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지역 의원들에게 한우 정책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장 도지회장은 ‘한우산업 기본법’을 모태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육성을 위해 ‘경북한우육성조례’를 개정, 경북 한우인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 등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해 한우산업을 끌고 갈 기반 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연석회의 부활, 소통창구 마련

장 도지회장이 취임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현장과의 소통창구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이다. 경북도내 24개 시·군지부 릴레이 연석회의를 통해 상호 정보교류와 의사소통, 행정정보 공유로 조직력을 결집시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상생협력의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군지회 연석회의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시군지부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 시군지부의 정부 보조사업과 관련된 정보도 교류하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면 도지회가 직접 현장으로 내려가 돕는 실질적 도움도 이뤄질 것입니다.”

### 위기의 한우산업 타개…행동하는 도지회

“한우 사육마릿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경북 한우농가를 대신해 한우인의 역할의 기준점으로 세워 언제나 모범이 되고 앞서가는 선진도지회가 되고자 합니다. 한우 옹도라고 경북도를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한우협회의 행동을 이끄는 도지회였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제 경북도지회는 그 역할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농협사료 경북지사와 고령축산물공판장에 사료가격 인화와 도축세 인상과 관련한 항의방문을 진행한 것도 이 일환이다.



도의회와 소통 강화-밀착 스킨십  
한우산업 예산수립과 집행 최우선  
임기 3년 내 한우육성조례 개정

“한우 사육마릿수가 전국 1위면 무엇하나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규모를 늘리고 도지회의 역할을 발굴해 성과 위주의 도지회를 만들겁니다.”

5월 초 경북도지사와의 만남에서도 장 도지회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요구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3년의 임기 동안 한우인들이 잘 버티면서 경영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로 결집해서 대구·경북의 한우산업이 한 단계 발전해 나가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 전례 없는 한우산업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옥미영  
팜인사이트 기자

한우농가의 불안정한 경영상황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명절과 함께 한우고기 소비 성수기로 꼽히는 5월에도 도매시장 한우고기 평균 거래가격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이후 한우 가격 안정을 낙관하기란 더욱 어렵게 됐다. 한우 시황은 올해 들어서도 이렇다 할 반등세를 보이진 못했지만 1~4월까지 한우 지육 가격은 거세우를 기준으로 kg당 1만 7천 원 선을 유지하며 선방했다. 하지만 5월 들어선 거세우 평균가격이 1만 6846원으로 내려앉았다.

암소를 포함한 평균가격은 1만 5천 원을 간신히 넘었고, 1++등급의 2만 원 선도 무너졌다. 통계청의 2023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가들의 경영상황은 더욱 암담하다. 한우 번식우 농가는 송아지 한 마리를 생산해 팔 때마다 128.6만 원을, 비육 농가는 소 한 마리를 출하할 때마다 142.6만 원씩 적자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일관 사육 농가들 상황은 좋을까

“사룻값을 비롯한 여러 비용이 상승한 상황에서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일관 사육 농가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6월 3일 열린 한우협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통계청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나마 일관 사육 농가들의 상황은 조금 나은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번 생산비 조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일관사육 농가들의 상황은 나을 것’이란 농식품부 분석은 오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송아지 생산비는 2022년 432만 7,000원에서 지난해 497만원으로 13.7% 상승한 한 반면, 비육우 생산비는 2022년 129만 3,000원에서 2023년 129만원으로 소폭(0.2%) 감소했다. 비육우 생산비가 감소한 건 생산비 가운데 두 번째로 생산비 비중(32.7%)이 높은 송아지 구입비(가축비)가 전년 대비 14.8% 감소했기 때문이다.

### 번식·비육·일관사육 ‘농가 모두 힘든 상황’

농식품부의 분석처럼 외부에서 송아지를 조달하는 것에 비해 송아지를 자체 생산할 경우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는 송아지값이 높게 형성됐을 때의 경우만 해당한다. 지금처럼 송아지값이 폭락한 상황에선 외부에서 송아지를 구매하는 것이 생산비를 절감하는 길임을 통계청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를 놓고 볼 때 비육 농가들의 경우 송아지값 폭락으로 생산비가 소폭 하락하는 등 지육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작게나마 분산하고 있지만, 송아지를 자체 생산하는 일관 사육 농가의 경우 생산비 증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더욱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결국, 현재 약 70% 수준을 차지하는 일관사육 농가는 물론 번식과 비육 농가 등 모든 한우농가가 지금

경영 악화 사육 포기 속출...한우농가 8만선 붕괴 눈앞  
정부·한우업계, 한우농가 ‘급격한 사육심리 위축’ 막아야

의 심각한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한우 암소 생산기반 사수해야

당장으론 한우산업 불황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송아지를 내다 팔거나, 혹은 소 한 마리를 출하할 때마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암송아지와 암소 비육 등 생산비를 덜 수 있는 방안에 골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의 한우 암소 비육 및 도축 증가와 폐업 등의 추세가 가속할 경우 한우 생산기반은 수년 내 급속히 무너질 수 있다. 지금 당장은 공급 과잉을 해결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널리 보면 지금의 암소도축률 추세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향후 수 년 내에는 생산기반을 살리는 것이 과제가 될 수 있다.

한우는 1년에 새끼 한 마리를 낳는 번식과 생리 특성 때문에 단시일 내 증가와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안정적인 수급조절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당장의 문제에서 벗어나 조금 더 깊은 호흡과 안목으로 몇 년 후를 내다보아야 한다.

무분별한 암소 비육 특히 형질이 뛰어난 암소가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처분되지 않도록 정부와 한우업계의 세심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정확한 기록을 통한 고소득 창출하자

번식암소에 대한 후대검정 성적을 활용  
보증씨수소 정액 계획교배-번식우 선발  
다산 유도...생산효율성 고부가가치 창출

글. BA플러스 신일권 대표



요즈음 한우산업은 매우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사육두수는 늘어난 반면 소비는 위축되어 있으며 외국산 소고기는 사정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현재 한우 계세 경락단가 평균은 17,000원 초반으로 형성되고 있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육질등급 1+ 경락단가도 평균 20,000원 이하로 하락되었고, 사료가격은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가격 인하 시 올라간 만큼 내려오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 한우는 국민건강과 단백질 공급원인 식량으로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 한우가 식량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

를 전체적으로 보완 및 재점검이 필요할 때라 생각된다.

그리고 국제경쟁력강화와 생산비절감을 통한 생산성효율을 위해 농장의 규모화와 전문화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우농가 사이에도 빈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한우개량사업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개량은 보증씨수소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통해 암소개량을 해왔다. 개량은 수소와 암소가 똑같이 해야 하지만 여건상 지금까지 수소 위주로 개량해왔고 엄청나게 결실을 보았다. 앞으로는 암소에 초점을 맞추어 농가 스스로 개량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암소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신용이 제일 중요하다.



## 1. 우량암소를 찾아내어 다산으로 생산성효율을 높이자

생산성을 향상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농장별로 사육하고 있는 한우 중에서 돈을 벌어주는 찾아내는 것이다. 즉 기록을 통하여 체형이 큰 개체로서 체고가 130cm이상, 체장 150cm이상, 선형심사 점수 80이상 받은 번식우를 찾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번식암소에 대한 후대검정 성적을 활용하여 암소에 알맞은 보증씨수소 정액으로 계획교배를 실시하는 것이다. 암소의 후대검정은 후대축의 도체성적을 이용하는 것으로 후대축 육질등급이 1\*\*A·B 나온 번식우를 선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발된 번식우는 다산을 유도하여 생산성 효율을 높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농장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다.



| 번식우(암소) 기록  |             | 번식우(수소) 기록  |             |
|-------------|-------------|-------------|-------------|
| 번식우(암소) 기록  | 번식우(수소) 기록  | 번식우(암소) 기록  | 번식우(수소) 기록  |
| 체고: 130cm   | 체고: 130cm   | 체고: 130cm   | 체고: 130cm   |
| 체장: 150cm   | 체장: 150cm   | 체장: 150cm   | 체장: 150cm   |
| 선형심사 점수: 80 | 선형심사 점수: 80 | 선형심사 점수: 80 | 선형심사 점수: 80 |

## 2. 인공수정 수태율을 높이자

인공수정율을 높이는 것이 한우생산성 향상과 개량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인공수정 수태율을 높이는 방법은 정확한 기록으로부터 시작된다. 송아지 생산 1년 1산을 위해서는 송아지의 분만 후의 어미소의 발정일을 기록하는 것으로 송아지분만 후 22일 또는 42일경에 반드시 발정이 오기 때문에 달력 또는 개체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두어 발정에정일 전후로 번식우의 외음부를 관찰하여 발정여부를 체크한다.

두 번째는 인공수정은 환경, 자가수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수태율에 영향을 받으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 3. 자연종부는 개량을 역행시킨다

송아지 즉 후대축을 생산하는데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인공수정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과 두 번째는 자연종부를 통하여 생산하는 것이다. 인공수정은 당·후대검정을 통하여 능력이 확인된 씨수소의 정액을 채취하여 암소에 주입하는 방법이고 자연종부는 농장주가 사육하고 있는 수소 중에서 선택하여 암소에 교배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자연종부는 암·수의 능력을 모르고 송아지가격의 상승시에 수정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규모화된 번식농장에서 자연종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개량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송아지를 구매하는 농가에게도 피해를 초래한다. 자연종부는 개체별 기록이 없을 경우 근친피해를 예방할 수가 없으며,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근친피해는 근친계수 10%이상일 경우 도체중은 -14.8kg이 덜 크고 근내지방도는 -0.05점이 감소가 있다고 한다. 자연종부는 전염성질병을 유발시키고 농가소득창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라 생각된다. 자연종부를 근절시키고 인공수정을 활용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과 소득창출의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인공수정 수태율 높여  
한우생산성 향상·개량 중요

우량 후대축 생산,  
자연종부보다 인공수정 바람직





## 전문가 칼럼



**이은주**  
소우마음이은주연구소장  
제일사료(주) 한우연구소 자문위원

## 한우농가 생산성-수익성 향상에 중요한 한우 혹서기 사양관리

한우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혹서기 고온스트레스이다. 혹서기 고온 스트레스는 사료 섭취량 감소로 인한 비육우 증체량 저하, 번식우 수태율 저하, 면역력 하락으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으로 인한 폐사를 증가 등 한우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혹서기 고온 스트레스의 영향을 더욱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에 있어서 바람직한 기온(적온 영역)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생산 환경 한계 온도), 최적 온도와 습도는 [표 1]과 같다. 한우는 비교적 추위에 강하나, 송아지나 비육우는 육성우와 번식우 비해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혹서기 사양관리를 더 세심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혹서기에 가축의 생산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온도와

[표 1] 소의 사육적온 및 생산환경

| 구분  | 최적       | 적온범위(°C) |          | 생산환경 |    |
|-----|----------|----------|----------|------|----|
|     | 구분온도(°C) | 습도(%)    | 임계온도(°C) | 저온   | 고온 |
| 송아지 | 18       | 60       | 13 ~ 25  | 5    | 30 |
| 육성우 | 16       | 70       | 4 ~ 20   | -10  | 32 |
| 번식우 | 10       | 70       | 0 ~ 20   | -10  | 32 |
| 비육우 | 16       | 70       | 10 ~ 20  | -10  | 30 |

자료 : 농촌진흥청

[표 2] 환경 온도별 한우 맥박수, 호흡수, 체온 변화

| 구분           |     | 환경온도 (°C) |      |      |      |      |       |
|--------------|-----|-----------|------|------|------|------|-------|
|              |     | -10       | 0    | 10   | 20   | 30   | 40    |
| 맥박수<br>(회/분) | 송아지 | 61.5      | 58.6 | 56.7 | 60.5 | 66.1 | -     |
|              | 육성우 | -         | -    | 64.6 | 64.5 | 67.9 | 72.3  |
|              | 비육우 | 66.8      | 71.2 | 61.9 | 64.0 | 65.3 | 60.4  |
| 호흡수<br>(회/분) | 송아지 | 7.6       | 9.8  | 13.5 | 19.2 | 47.0 | -     |
|              | 육성우 | -         | -    | 15.5 | 22.2 | 73.9 | 105.9 |
|              | 비육우 | 11.4      | 18.1 | 24.0 | 35.6 | 85.2 | 140.4 |
| 체온<br>(°C)   | 송아지 | 37.1      | 37.8 | 37.7 | 38.2 | 38.3 | -     |
|              | 육성우 | -         | -    | 37.7 | 38.2 | 39.5 | 40.4  |
|              | 비육우 | 37.7      | 37.7 | 37.8 | 38.3 | 38.3 | 41.5  |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2001

습도이며, 농장의 온도와 습도 관리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가축더위지수( $1.8 \times \text{온도} + 32$ ) -  $[(0.55 - 0.0055 \times \text{상대습도}) \times (1.8 \times \text{온도} - 26.8)]$ 이다.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더위지수가 72미만 양호, 72이상 주의, 78이상 경고, 89이상 위험, 98이상 폐사이다. 가축더위지수가 경고이상부터 사료섭취량이 감소하고, 증체량이 감소한다.

특히 환경온도가 상승하면 호흡수 증가, 체온 상승, 제1위 운동저하로 인하여 배합사료와 조사료 섭취량 감소로 인하여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 발생율이 높아지며, 번식우의 경우 직장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수태율이 저하된다.

환경온도에 따른 사료섭취량과 음수 요구량을 보면 [표 3] 온도가 25°C가 넘어가면 고온 스트레스를 받아 사료섭취량이 감소하고, 음수 요구량이 증가한다.

특히 온도가 35°C가 넘어가면 음수 요구량은 적온대비 2배에서 3배 정도가 증가하며, 사료 섭취량은 적온대비 최소 10%, 최대 35%까지 감소한다.

[표 3] 환경온도에 따른 사료섭취량 및 음수 요구량 변화

| 환경온도(°C) | 사료섭취량(건물기준) | 물 요구량(kg/kgDM) |
|----------|-------------|----------------|
| 35°C 이상  | 10~35% 감소   | 8~15           |
| 25~35    | 3~10% 감소    | 4~10           |
| 15~25    | 사양표준 기준 섭취량 | 3~5            |
| 5~15     | 2~5% 증가     | 3~5            |
| -5~5     | 3~8% 증가     | 2~4            |
| -15~-5   | 5~8% 증가     | 2~3            |
| -15°C 이하 | 8~25% 증가    | 2~3            |

자료 : NRC 사양표준, 1981





## 혹서기 사양관리 대책

### 1) 사료 영양 관리

고온 스트레스로 인하여 호흡수 증가와 열발산량 증가로 인하여 유지 요구량이 증가하고, 건물 섭취량이 감소하므로 영양소 함량이 높은 사료를 탑드레싱 해주거나 영양소 함량이 높은 농후사료를 급여하며, 조사료는 양질의 화본과 건초를 약 5cm로 세절하여 급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초, 곰팡이가 생긴 건초, 부패한 건초 등은 좋지 않기 때문에 급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음수량 증가와 증발 및 배뇨량 증가로 염분 배출량이 증가하므로 소금을 추가로 급여하여야 하며, 번식우는 사조에 미네랄 블록을 설치하여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으며, 비타민과 미네랄 요구량이 증가하므로 추가로 급여한다.

비육우는 고온 스트레스의 경감을 위하여 비타민제제나 반추위 보호 비타민C 제제 등을 추가로 급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비타민 A 소모량이 증가하므로 사료 섭취량과 우사 환경 조건, 비타민 A 결핍 증상이 있는지 관찰한 후 추가로 비타민 A를 급여한다. 또한 반추위 안정화를 위하여 버퍼제, 생균제 등을 급여한다.

### 2) 농후사료와 조사료 비율 점검

고온 스트레스의 1위 운동저하로 섭취한 사료가 소화관내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져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고, 배합사료보다 조사료 섭취량이 감소가 심하며, 이로 인한 반추위 산도 저하로 인하여 사료 섭취량 감소와 과산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수시로 분변을 관찰한 후 농후사료와 조사료 급여 비율이 적당한지 점검한다.

### 3) 사료 급여횟수 증가

사료 급여횟수를 늘려 줌으로서 반추위 환경을 안정화 시키고, 신선한 사료를 자주 급여함으로써 사료 섭취량이 저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 4) 청결한 급수조 및 사료조 관리

온도가 상승하면 음수 요구량이 증가하므로 급수조를 자주 청소하여 청결하게 해주고,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급수조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고, 사료조에 곰팡이 발생유무를 확인하고,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준다.

혹서기 사양관리에 따라 생산성-수익성 향상 좌우  
사료 섭취량 저하 예방-쾌적한 사육환경이 포인트



### 5) 신선한 공기를 제공한다.(환기)

우사 안의 공기 흐름을 좋게 하여 항상 신선한 공기를 유지시켜 냄새를 적게 하여 사료 섭취량 감소를 사전에 예방해준다. 환기가 잘되는 농장은 선풍기를 수직으로 설치하고, 환기가 잘안되는 농장은 선풍기를 45도 각도로 설치하여 장제로 선풍기 바람을 통해 환기를 시켜 준다.

### 6) 체감온도를 낮추어 준다.(선풍기 설치)

창문이나 문, 윈치커튼을 열어 주거나, 선풍기를 수직 또는 45도 각도로 설치해주고, 우사 중앙통로에 대형 선풍기를 추가로 설치해주는 것도 좋다.

또한 우사에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우사내 안개분무기 가동과 지붕위에 스프링 쿨러를 설치해주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사에 햇빛이 들어오면 우사 옆면에 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차광막을 설치한다.

### 7) 기타사양관리

사료는 이른 아침과 저녁, 늦은 저녁에 급여하고, 사료를 자주 저어 두며, 사료 변경 시 교체 기간은 최소 15일 이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파리, 모기, 해충 구제와 우사 바닥은 항상 건조하게 관리해주고, 밀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혹서기 사양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사료 섭취량 저하를 예방과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한우농가의 소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더욱 더 필요한 시기이며, 이러한 한우농가의 노력의 결과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최고의 수익을 올려 줄 것이다.





## 우리집 암소, 어떤 정액으로 교배할까?

## 씨수소일람표 꼼꼼히 살펴보는 법

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한우개량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우량씨수소를 선발하고 냉동정액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또 씨수소의 유전 정보를 공개해 농가에서 적절히 정액을 선택,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파악은 정액을 선택하는데 중요하다. 보증씨수소 KPN1600과 KPN1603의 정보표를 예시로 각 자리의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KPN, EPD, Acc 영어 약자가 무슨 의미인지, 어떤 정액을 사용하면 유리할지 알아보자.

| KPN1600   | 중재형<br>(만년 2.8)  | KPN1603   | 관장형<br>(만년 2.8)  |
|---|------------------|---|------------------|
|  |                  |  |                  |
| KPN1600   |                  | KPN1603   |                  |
| 출생: 1987. 06. 07  | 출생: 1988. 01. 19 | 출생: 1988. 01. 19  | 출생: 1988. 01. 19 |
| 출처: 1987. 06. 07  | 출처: 1988. 01. 19 | 출처: 1988. 01. 19  | 출처: 1988. 01. 19 |
| 출처: 1987. 06. 07  | 출처: 1988. 01. 19 | 출처: 1988. 01. 19  | 출처: 1988. 01. 19 |
| 출처: 1987. 06. 07  | 출처: 1988. 01. 19 | 출처: 1988. 01. 19  | 출처: 1988. 01. 19 |



## 보증씨수소와 후보씨수소

현재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액은 보증씨수소와 후보씨수소로 나뉜다. 우량씨수소와 우량암소로부터 태어난 수송아지 900두를 12개월간 키우면서 개별 검정을 통해 우량한 소를 매년 66마리 선발한다. 이 66마리 소들이 후보씨수소가 된다. 900마리에서 66마리로 소를 추리는 과정을 당대검정이라고 하며 6개월령에서 12개월령이 될 때까지 6개월간 체중, 체적, 초음파검사를 통한 형질을 조사, 12개월령의 체중, 근내지방도 측정을 근거로 선발한다. 후보씨수소가 되면 정액을 채취해 냉동보관한다. 후보씨수소는 후대검정을 통해 그 유전능력을 평가받는다. 후대검정을 거쳐 선발된 30두가 매년 보증씨수소가 된다. 후대검정은 후보씨수소 정액을 이용해 4,500두의 암소에서 교배해 태어난 수송아지 800두를 거세후 비육해 육질을 검정, 선발하는데 이 과정이 5~6년이 소요된다.

소 한 마리가 보증씨수소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66마리의 후보씨수소를 800두의 자손으로 검정하면 한 마리당 12마리의 후대송아지로만 검증하는 것이므로 유전 능력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90% 이하로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다(더 많은 송아지로 검증하면 신뢰도가 99%로 수렴). 한우 개량에 관심이 있는 농가는 후보씨수소의 정액을 이용해 개량할 수 있도록 후보씨수소 단계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 보증씨수소 이름과 장점 알아보기

KPN은 Korean Proven Bull Number의 약자이며 씨수소의 번호 앞에 붙는다. KPN1600오른편에는 증체형이라 적혀있는데 이 소의 장점은 증체가 잘 되고, KPN1603은 권장형을 의미한다. 분류유형에는 총 6가지가 있다.



**육질형** 근내지방도(육질) 개량형

**정육형** 등지방두께 개량용

증체형 냉도체중(육량) 개량용

**권장형** 육질과 육량 동시 개량용

등심형 등심면적 개량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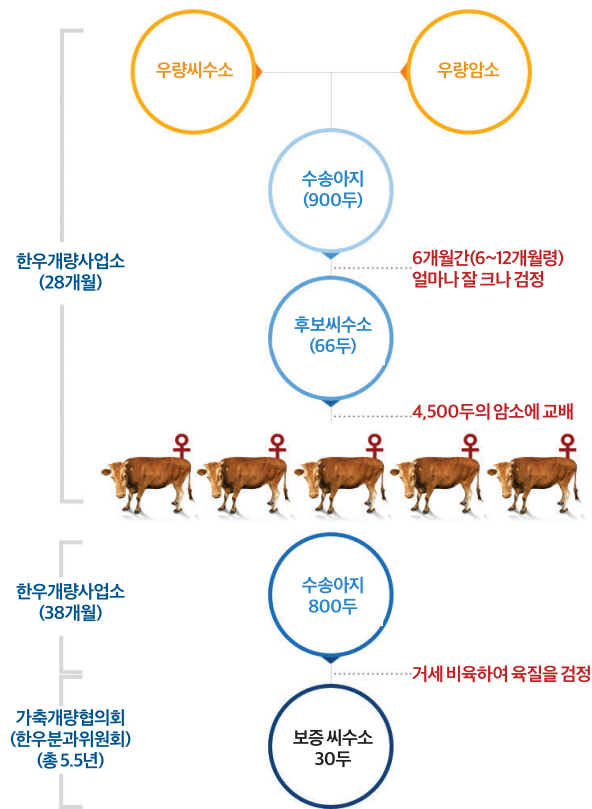
**보급형** 저렴한 가격의 육량 개량용





각 소가 어떤 이유로 분류 유형을 얻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림 1] 생산형질에 대한 유전능력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 만금2호는 KPN1600의 한우육종농가로부터 부여 받은 축명이다. 흑모나 백모와 같은 이모가 있는 개체는 유형 오른쪽에 표시하게 되어있는데 KPN1600은 이 모색이 없다.  
만약 이 씨수소가 수정란이 식으로 태어난 개체라면 KPN 번호 옆에 (ET)라고 쓰여 있다.



[그림 1] 생산형질에 대한 유전능력

#### 생산형질에 대한 유전능력

생산형질의 항목에는 냉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가 있다.

##### 냉도체중

도체를 해체정형 후 0~5도의 냉장조건에서 12시간 이상 냉장된 지육중량

##### 배최장근단면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소 도체등급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 것으로 제 13흉추와 제1요추 사이의 등심면적의 크기

#####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의 오른쪽면을 따라 복부쪽으로 2/3 들어간 지점의 등지방 두께

##### 근내지방도

등심단면 내 지방 침착 정도에 따라 1~9의 범위 내에서 평가한 것으로 9에 가까울수록 지방침착도가 좋음

각 항목에 대한 유전정보는 EPD와 Acc로 표현된다.

#### EPD(Expected Progeny Difference)

씨수소가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예상유전 전달능력'을 표시한 것. EPD는 각 씨수소가 사양관리와 같은 환경적 요인을 배제하고 오직 유전능력만을 다른 모든 씨수소의 유전능력 평균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 또는 -로 표시한 것(예 : KPN1600과 KPN1603의 냉도체중 EPD는 각각 40.35와 31.64이므로 KPN1600으로 교배, 생산한 수송아지의 냉도체중이 KPN1603으로 교배하여 얻은 송아지의 냉도체중보다 8.71kg 더 높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EPD(Expected Progeny Difference)

씨수소가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예상유전 전달능력'을 표시한 것. EPD는 각 씨수소가 사양관리와 같은 환경적 요인을 배제하고 오직 유전능력만을 다른 모든 씨수소의 유전능력 평균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 또는 -로 표시한 것(예 : KPN1600과 KPN1603의 냉도체중 EPD는 각각 40.35와 31.64이므로 KPN1600으로 교배, 생산한 수송아지의 냉도체중이 KPN1603으로 교배하여 얻은 송아지의 냉도체중보다 8.71kg 더 높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체형형질에 대한 유전능력

한우의 10개 주요 체형부위에 대해 각 씨수소간의 유전능력에 대한 상대치(EPD)로 나타낸다.

#### 분할육 (비율)에 대한 유전능력

한우의 10개 주요 분할육에 대해 각 씨수소간의 유전능력에 대한 상대치(EPD)로 나타낸다.

#### 근친씨수소에 대한 정보

현 자료에 나와있지 않지만 쓰려는 정액과 교배하려는 암소의 아비소 정액번호 사이의 혈연계수가 12.5% 이상인 경우 근친으로 나타난다.

#### 어떤 정액을 쓰는 것이 유리할까?

어떤 정액을 써야 할지 고민된다면 우선 농장의 한우 암소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초음파검사, 체중, 외형검사를 통한 소의 정보가 있어야 정액의 유형을 선택하기 쉽다. 예를 들어 초음파 검사 시 낮은 등지방두께, 높은 근내지방 함량을 보이지만 체중이 작게 나가는 소는 육량형 정액을 사용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암소 아비의 정보를 정확히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에 썼던 정액이 어떤 것인지 모를 경우 교배시 근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수송아지의 경우 혈통등록 유무가 경매에서 경쟁력이 되므로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한다. 키우고 있는 소에 대한 기록관리와 씨수소의 정확한 정보파악으로 정액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Q 난소낭종의 원인, 예방 및 치료법은

**난소낭종이란 난소에 성숙난포 보다 큰 직경 2.5cm 이상의 액체를 저류한 구조물이 1개 이상 있으며 이것이 10일 이상 장기간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 발정과 무발정을 유발하여 소의 임신율 저하시키는 주요 번식 질환 중의 하나이다.**



난소낭종은 난포낭종과 황체낭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난포낭종은 난소에서 난포가 성숙난포의 크기를 초과하여 발육하면서 난포가 배란되지 않은 것으로 직장검사 시 난소의 크기가 2.5cm 이상 커져 있으며, 소에서 긴 발정시간과 강한 발정 증상을 유도한다.

황체낭종은 난포낭종과 유사하게 난포가 배란되지 않고 난소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져있지만, 난소의 내벽이 황체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임상 증상은 발정 증상 없는 무발정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난포낭종은 좌우 양쪽의 난소에 다발성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황체낭종은 단발성일 때가 많다. 또한 난포낭종의 난포벽은 얇으면서 풍선에 물이 차있는 느낌이 강한 반면, 황체낭종은 난포낭종 때의 난포벽보다 두꺼우며 손으로 만져지는 느낌도 난포낭종 보다는 딱딱한 편인데, 이는 황체낭종의 벽에는 황체 조직층이 존재하므로 좀 더 두껍다.

난소낭종 발생 원인은 난자의 배란 및 황체형성을 일으키는 데 충분한 양의 황체형성호르몬(LH)이 하수체로부터 방출하지 않는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다. 주로 뇌하수체 호르몬의 분비 이상(FSH 분비 과잉, LH 분비 저하)으로 발생하며,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장애를 촉발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또한 유전적 소인이 있을 수 있으며, 사료 급여량의 증가, 특히 고단백 농후사료 과다 급여, 고영양사료 급여 등은 난소낭종의 발생을 촉진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햇빛 및 운동 부족으로 겨울철에 다발하는 경향이 있다. 분만 전·후에 발생하는 질병(유열, 유방염, 태반정체, 자궁염) 등이 해당 질환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에스트로겐 성분이 포함된 곰팡이에 오염된 사료 섭취 시 발생된다. 치료는 약물 투여 및 난소낭종의 제거를 병행한다. 임부태반용모성선자극호르몬(hCG),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 황체호르몬(LH) 등을 투여하며, 황체낭종의 치료는 황체퇴행호르몬(PGF<sub>2a</sub>) 등을 투여하여 치료한다.

난소낭종은 불균형한 사양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군에 빈번히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단순한 약물 치료보다는 장기적으로 농장에서의 사양관리 프로그램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 Q 한우에서 내·외부 기생충 구충 요령은

**소에서 기생충은 장기 내부에 기생하는 내부기생충과 가축의 체표 외부에 기생하는 외부기생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내부기생충에서는 회충, 편충, 요충, 장결정충 등의 연충류가 외부 기생충에서는 모기, 이, 벼룩 같은 곤충류와 진드기 같은 거미류가 있습니다.**

소가 기생충에 감염되면 성장, 면역 저하와 사료 효율 저하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의 정기적인 구충이 필요합니다.

기생충 구제를 위해서는 우군 전체에 광범위한 구충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방목 시 진드기 예방을 위해 약제를 살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송아지의 경우 생후 1개월 이내, 외부 구입우의 경우 구입 후 1주일 이내 광범위 구충제를 먹이거나 주사 또는 피부에 뿌려 구충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구충을 위해서 알벤다졸 등을 내외부 구충을 위해서는 이보맥 제제 등을 등에 뿌리거나 먹이는 방식으로 투여합니다. 특히 구충제의 각 성분별로 구제할 수 있는 기생충의 범위와 투여 방법, 투여 시 유의사항이 다르므로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 Q 임신중독증의 발생 원인과 예방법은

**한우의 임신중독증은 임신독혈증(Pregnancy Toxemia) 또는 소의 지방간증(Fatty liver syndrome)이라고도 하며 임신 말기의 소에서 영양부족 등 대사 장애로 인해 발생한다. 보통 과 비된 소에서 잘 발생하여 쌍태 임신인 경우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겨울철에 임신한 어미 소에 대한 영양관리가 부실한 경우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 임신중독증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불량한 초지에서 방목하는 소에서 더 영향을 받으며, 축사 환기 불량, 밀집사육 등 사육환경이 열악하거나 수술, 무더위, 맹추위 등 과 같은 스트레스는 발생을 촉진한다.

임신한 소는 임신 말기에 태아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간에 들어오는 지방을 활용하기 위해 일정량의 포도당이 필요하다. 반면 임신자궁이 배 속의 대부분을 차지해 내부 장기를 압박하고 소화관의 용적이 줄어 사료 먹는 양이 줄어들고 동시에 소화기능이 떨어져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특히 포도당)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소에게 양질의 사료가 거의 없을 때와 같이 간이 포도당을 만드는 것보다 지방이 더 빨리 들어오면 지방이 간에 축적되기 시작한다. 이 경우, 간이 비대해지고 창백하며 지방이 많아지고 케톤이 혈액에 과도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뇌 기능이 영향을 받고 소는 식욕이 떨어지거나 절제한다.

질병의 진행 과정, 영양적 예방 효과, 치료에 대한 반응 등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소가 우둔해지고 기동이나 벽에 기대고 멍하게 서 있으며, 밝은 빛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초기에는 농후사료를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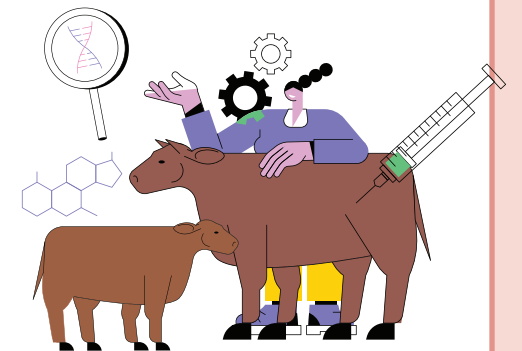
먹는 편이다. 심해지면 소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 있고, 눈물을 흘린다. 비틀거리고 앞을 잘 보지 못하며,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사료를 입에 넣어주어도 삼키지 못한다. 체온은 38.5~41℃로 일정치 않다. 상태가 진행됨에 따라 소는 점점 우둔해지고 외부의 자극에도 움직이기를 꺼린다. 임신중독증이 발생한 소는 일반적으로 호흡 속도가 빠르며 호흡에서 감지할 수 있는 특유의 달콤한 아세톤과 같은 냄새가 난다. 임신중독증이 분만 직전에 발생하면 누운 상태에서 낙태 또는 조기 분만이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후 3~7일 이내에 폐사



하며, 분만의 스트레스는 폐사를 앞당긴다.

임신중독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기 동안 특히 임신 초기와 중기에 어미 소가 살이 너무 찌지않게 관리하고 태아가 급격하게 자라는 임신 말기(7개월령 이후)에는 농후사료를 평상시보다 10% 정도 더 급여해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정맥 수액 요법, 제왕 절개 또는 분만 유도 의 가능성에 대해 즉시 수의사의 조언을 구해야 하며, 효과적인 약물 치료법은 없다. 수술이나 약물투여로 인공유산을 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약물요법으로 대량의 포도당 정맥주사, 당밀, 따뜻한 물, 제1위 미생물 제제 등을 먹여 치료를 시도하나 그 효과는 아주 적다. 과산증이 발생했을 경우 2% 중탄산소다가 함유된 포도당 전해질 용액을 5~10L 정맥 주사해 치료했다는 보고도 있다. 경증의 경우에는 프로필렌 글리콜과 전해질의 경구 치료도 유용할 수 있다.



## Q 비육우에서 지방간(간 화농)발생 원인과 예방법은

**반추가축인 소에서 간농양이 발생하는 이유는 농후사료의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과산증 발생 → 반추위 용모각화증 → 반추위 용모 탈락 → 반추위벽 염증 발생 → 염증독소 중화를 위한 간의 무리한 작용 → 지방간 발생 → 간농양 발생의 순서로 발생한다.**



간농양을 예방하기 위해서 육성기에서 비육 전기까지 농후사료를 적정량 이하로 제한 급여하고 양질의 건초를 12개월령에서 14개월령까지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그래야 간기능 저하를 최대한 뒤로 미룰 수 있고 비육 후기에 사료 섭취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입단음 현상도 방지할 수 있어서 출하체중도 늘릴 수 있다.



# 한우동향분석 2024.5



## 【한우사육】 2024년 4월 한우 사육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전월 대비 증가, 가임암소 마릿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감소

- 한우 사육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2.94% 감소, 전월 대비 0.98% 증가
- 가임암소 전년 동월 대비 1.28% 감소, 전월 대비 0.61% 감소
- 연령별 사육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 8.85%, 1세~2세 5.52% 감소, 2세 이상 1.24% 증가

## 【등급판정】 4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 1등급 이상 출현율 76.2%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감소
- 1\*\*등급 : 26.6%, 1\*등급 : 24.5%, 1등급 : 25.0%

## 【도매 및 산지가격】 4월 한우 도체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상승, 산지가격 큰 소 수소 전년 동월 대비 상승, 큰 소 및 송아지(6~7개월령) 전월 대비 하락

- 한우 큰 소(600kg) 암소 가격 전월 대비 2.6% 하락(수소는 0.9% 하락)
- 한우 암송아지(6~7개월령) 가격 전월 대비 4.7% 하락(수송아지는 0.8% 하락)

## 【배합사료·정액판매】 배합사료 누적 생산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정액 누적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4월 배합사료 누적 생산량 전년 동기 대비 0.54% 증가
- 4월 정액 누적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0.79% 증가

## 【쇠고기 수입】 4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9.4% 감소, 전월 대비 0.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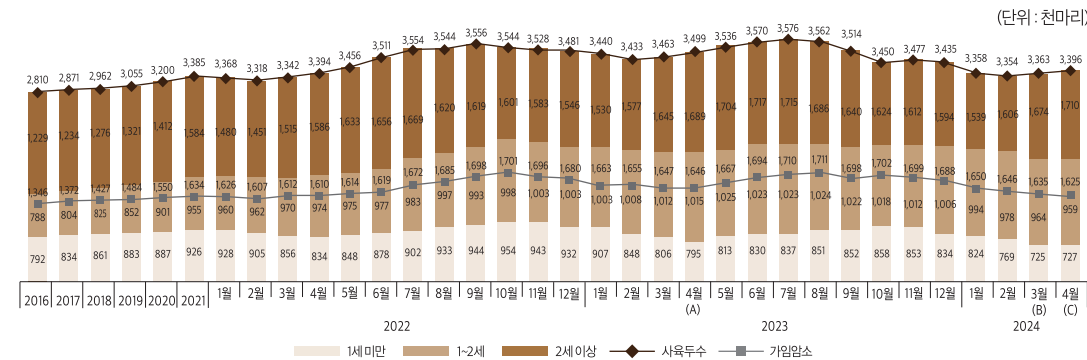
- 전월 대비 냉동육 수입 0.6% 증가, 냉장육 2.7% 감소



## 1. 한우 사육 동향

◎ 2024년 4월 한우 사육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감소 및 전월 대비 증가, 가임암소 마릿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감소

- 한우 사육마릿수는 339만 6천 마리로 전년 동월(349만 9천 마리) 대비 2.94%(10만 3천 마리) 감소, 전월(336만 3천 마리) 대비 0.98%(3만 3천 마리) 증가
- 가임암소는 162만 5천 마리로 전년 동월(164만 6천 마리) 대비 1.28%(2만 1천 마리) 감소, 전월(163만 5천 마리) 대비 0.61%(1만 마리) 감소
- 연령별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은 8.85%(6만 8천 마리), 1~2세는 5.52%(5만 6천 마리) 감소, 2세 이상은 1.24%(2만 1천 마리) 증가
- 사육 농장수는 81,269농장으로 전년 동월(86,145농장) 대비 5.66%(4,876농장) 감소, 전월(81,717농장) 대비 0.55%(448농장) 감소
- 농장 당 사육마릿수는 41.8마리로 전년 동월(40.6마리) 대비 2.96%(1.2마리) 증가, 전월(41.2마리) 대비 1.46%(0.6마리) 증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소이력관리현황'

【그림 1】 한우 사육 두수 현황

【표 1】 한우 사육 현황

(단위 : 호, 천마리, %, 마리)

| 구분   | 농장수       | 사육두수   | 가임 암소두수 | 송아지 두수 | 연령별 두수 |       |       | 농장당 사육두수 |
|------|-----------|--------|---------|--------|--------|-------|-------|----------|
|      |           |        |         |        | 1세 미만  | 1~2세  | 2세 이상 |          |
| 2021 | 89,423    | 3,312  | 1,578   | 88.2   | 873    | 931   | 1,508 | 36.9     |
| 2022 | 1월        | 89,559 | 3,368   | 1,626  | 61     | 928   | 960   | 37.6     |
|      | 2월        | 89,378 | 3,318   | 1,607  | 58.2   | 905   | 962   | 37.1     |
|      | 3월        | 89,378 | 3,342   | 1,612  | 44.1   | 856   | 970   | 37.4     |
|      | 4월        | 89,343 | 3,394   | 1,610  | 87.7   | 834   | 974   | 38.0     |
|      | 5월        | 89,242 | 3,456   | 1,614  | 89.5   | 848   | 975   | 38.7     |
|      | 6월        | 89,153 | 3,511   | 1,639  | 78.6   | 878   | 977   | 39.4     |
|      | 7월        | 89,016 | 3,554   | 1,672  | 66.5   | 902   | 983   | 39.9     |
|      | 8월        | 88,633 | 3,544   | 1,685  | 46.8   | 933   | 991   | 40.0     |
|      | 9월        | 88,471 | 3,556   | 1,698  | 41.2   | 944   | 993   | 40.2     |
|      | 10월       | 88,137 | 3,544   | 1,701  | 34.1   | 945   | 998   | 40.2     |
|      | 11월       | 87,784 | 3,528   | 1,696  | 32.4   | 943   | 1,003 | 40.2     |
|      | 12월       | 87,470 | 3,481   | 1,680  | 31.7   | 932   | 1,003 | 39.8     |
| 2023 | 1월        | 87,160 | 3,440   | 1,663  | 57.4   | 907   | 1,003 | 39.5     |
|      | 2월        | 86,861 | 3,433   | 1,655  | 67.4   | 848   | 1,008 | 39.5     |
|      | 3월        | 86,524 | 3,463   | 1,647  | 115.8  | 806   | 1,012 | 40.0     |
|      | 4월(A)     | 86,145 | 3,499   | 1,646  | 125.7  | 795   | 1,015 | 40.5     |
|      | 5월        | 85,616 | 3,536   | 1,667  | 116.8  | 813   | 1,020 | 41.3     |
|      | 6월        | 85,261 | 3,570   | 1,694  | 93.8   | 830   | 1,023 | 41.9     |
|      | 7월        | 84,897 | 3,576   | 1,710  | 82     | 837   | 1,023 | 42.1     |
|      | 8월        | 84,504 | 3,562   | 1,711  | 73.9   | 851   | 1,024 | 42.2     |
|      | 9월        | 84,097 | 3,514   | 1,698  | 56.9   | 852   | 1,022 | 41.8     |
|      | 10월       | 83,818 | 3,450   | 1,702  | 51.5   | 858   | 1,018 | 41.8     |
|      | 11월       | 83,628 | 3,477   | 1,699  | 46.5   | 853   | 1,012 | 41.6     |
|      | 12월       | 83,254 | 3,435   | 1,688  | 49     | 834   | 1,006 | 41.3     |
| 2024 | 1월        | 82,590 | 3,358   | 1,650  | 51.5   | 824   | 994   | 40.7     |
|      | 2월        | 82,227 | 3,354   | 1,646  | 61.9   | 769   | 978   | 40.8     |
|      | 3월(B)     | 81,717 | 3,363   | 1,635  | -      | 725   | 964   | 41.2     |
|      | 4월(C)     | 81,269 | 3,396   | 1,625  | -      | 727   | 959   | 41.8     |
| 증감률  | 전년동월(C/A) | △5.66  | △2.94   | △1.28  | -      | △8.55 | △5.52 | 2.96     |
|      | 전월(C/B)   | △0.55  | 0.98    | △0.61  | -      | 0.28  | △0.52 | 1.46     |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2.

한우  
등급판정  
동향

◎ 2024년 4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및 전월 대비 증가

- 4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는 76,675마리로 전년 동월(69,855마리) 대비 9.8%(6,820마리) 증가, 전월(69,383마리) 대비 9.8%(6,820마리) 증가
  - 성별비율은 암소 51.2%, 수소 0.5%, 거세우 48.3%
  - \* 전월대비 : 암소 0.8%p↓, 수소 0.0%p, 거세우 0.8%p↑, 거세율 0.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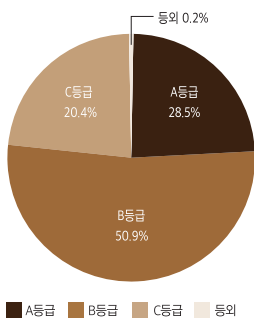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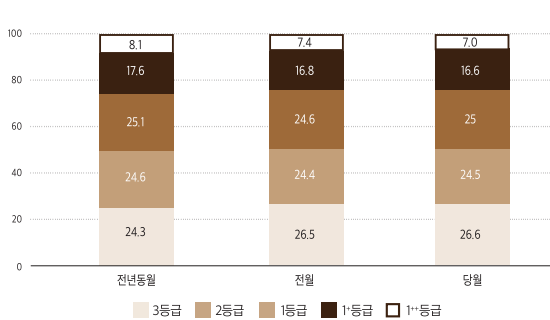
[표 2] 한우 성별 등급판정 두수

| (단위 : 마리, %)        |         |         |       |         |       |
|---------------------|---------|---------|-------|---------|-------|
| 구분                  | 계       | 암       | 수     | 거세      | 수소거세율 |
| 전년누계<br>(’23.1.~4월) | 299,630 | 150,227 | 1,932 | 147,471 | 98.7  |
|                     | 100.0   | 50.1    | 0.6   | 49.2    |       |
| 금년누계<br>(’24.1.~4월) | 329,348 | 161,872 | 1,827 | 165,649 | 98.9  |
|                     | 100.0   | 49.1    | 0.6   | 50.3    |       |
| 전년동월<br>(’23.4월)    | 69,855  | 36,466  | 387   | 33,002  | 98.8  |
|                     | 100.0   | 52.2    | 0.6   | 47.2    |       |
| 전월(’24.3월)          | 69,383  | 36,084  | 350   | 32,949  | 98.9  |
|                     | 100.0   | 52.0    | 0.5   | 47.5    |       |
| 당월(’24.4월)          | 76,675  | 39,272  | 370   | 37,033  | 99.0  |
|                     | 100.0   | 51.2    | 0.5   | 48.3    |       |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4월 한우 등급판정 결과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76.2%, 전년 동월 대비 1.6%p 증가, 전월 대비 0.7%p 증가

- 4월 1등급 이상 등급별 출현율은 1\*\*등급 26.6%, 1\*등급 24.5%, 1등급 25.0%
  -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은 전월(75.5%) 대비 0.7%p↑, 1\*\*등급 0.1p↑, 1\*등급 0.1%p↑, 1등급 0.4%p↑
  - 전년 동월(74.1%)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2.1%p↑, 1\*\*등급은 2.3%p↑, 1\*등급 0.1%p↓, 1등급은 0.1%p↓
  - 전년 누계(74.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8%p↑, 1\*\*등급은 1.7%p↑, 1\*등급 0.1%p↑, 1등급은 0.2%p↑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그림 2]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좌) 및 육량 등급 출현율(우)

[표 3] 한우 등급별 출현율 추이

(단위 : 두, %, %p)

| 구분          |         | 판정두수    | 육질등급 |      |      |      |      |      | 육량등급 |      |      | 등외   |
|-------------|---------|---------|------|------|------|------|------|------|------|------|------|------|
|             |         |         | 1**  | 1*   | 1    | 소계   | 2    | 3    | A    | B    | C    |      |
| 2016        |         | 737,476 | 9.6  | 30.4 | 29.4 | 69.3 | 22.8 | 7.6  | 22.9 | 47.2 | 29.6 | 0.2  |
| 2017        |         | 742,536 | 10.1 | 33.3 | 28.7 | 72.1 | 20.3 | 7.4  | 21.2 | 47.1 | 31.4 | 0.3  |
| 2018        |         | 736,354 | 12.2 | 30.4 | 30.4 | 72.9 | 19.4 | 7.3  | 20.5 | 47.6 | 31.7 | 0.3  |
| 2019        |         | 765,297 | 15.7 | 28.3 | 29.9 | 74.0 | 18.6 | 7.1  | 20.7 | 48.2 | 30.8 | 0.3  |
| 2020        |         | 762,749 | 22.5 | 25.5 | 26.1 | 74.1 | 18.2 | 7.4  | 25.0 | 50.5 | 24.2 | 0.3  |
| 2021        |         | 794,238 | 23.8 | 25.8 | 25.3 | 74.9 | 17.5 | 7.3  | 24.4 | 52.4 | 23.0 | 0.3  |
| 2022        |         | 869,147 | 25.6 | 25.3 | 24.3 | 75.2 | 17.0 | 7.6  | 27.0 | 52.0 | 20.7 | 0.2  |
| 2023        |         | 929,411 | 25.3 | 24.8 | 24.6 | 74.6 | 17.2 | 7.9  | 28.0 | 51.7 | 20.0 | 0.3  |
| 2023        | 4월(A)   | 69,855  | 24.3 | 24.6 | 25.1 | 74.1 | 17.6 | 8.1  | 27.1 | 51.3 | 21.4 | 0.2  |
|             | 1~4월(B) | 299,630 | 25.3 | 24.7 | 24.5 | 74.6 | 17.2 | 7.9  | 26.8 | 51.4 | 21.6 | 0.3  |
| 2024        | 3월(C)   | 69,383  | 26.5 | 24.4 | 24.6 | 75.5 | 16.8 | 7.4  | 28.4 | 50.2 | 20.9 | 0.4  |
|             | 4월(D)   | 76,675  | 26.6 | 24.5 | 25.0 | 76.2 | 16.6 | 7.0  | 28.5 | 50.9 | 20.4 | 0.2  |
|             | 1~4월(E) | 329,348 | 27.0 | 24.8 | 24.7 | 76.4 | 16.5 | 6.8  | 27.4 | 50.9 | 21.4 | 0.3  |
| 전월대비(D-C)   |         | 7,292   | 0.1  | 0.1  | 0.4  | 0.7  | △0.2 | △0.4 | 0.1  | 0.7  | △0.5 | △0.2 |
| 전년동월대비(D-A) |         | 6,820   | 2.3  | △0.1 | △0.1 | 2.1  | △1.0 | △1.1 | 1.4  | △0.4 | △1.0 | 0.0  |
| 전년누계대비(E-B) |         | 29,718  | 1.7  | 0.1  | 0.2  | 1.8  | △0.7 | △1.1 | 0.6  | △0.5 | △0.2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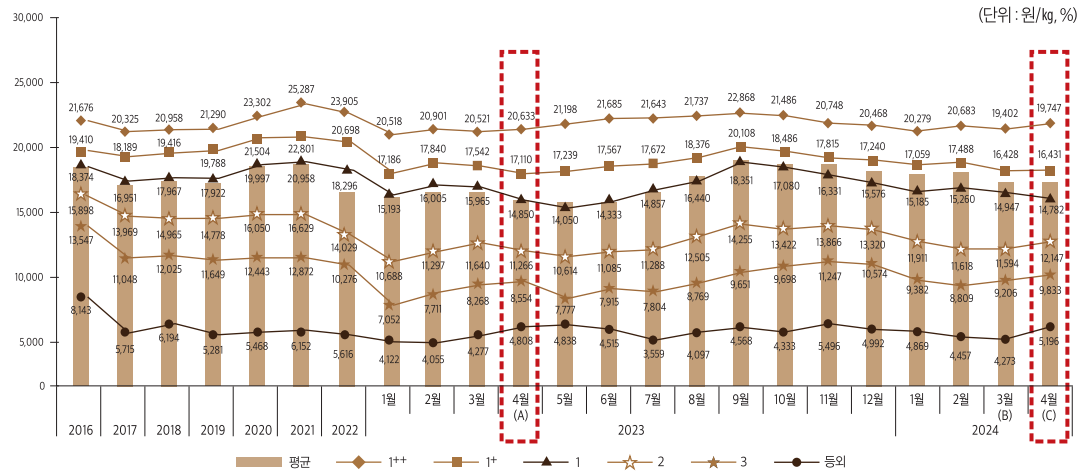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3.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동향

◎ 2024년 4월 한우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상승

- 4월 1등급 기준 도매가격(14,782원/kg)은 전년 동월(14,850원/kg) 대비 0.4% (68원/kg) 하락, 전월(14,947원/kg) 대비 1.1%(165원/kg) 하락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5,887원/kg)은 전년 동월(15,729원/kg) 대비 0.9%(148원/kg) 상승, 전월(15,659원/kg) 대비 1.3%(218원/kg) 상승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그림 3]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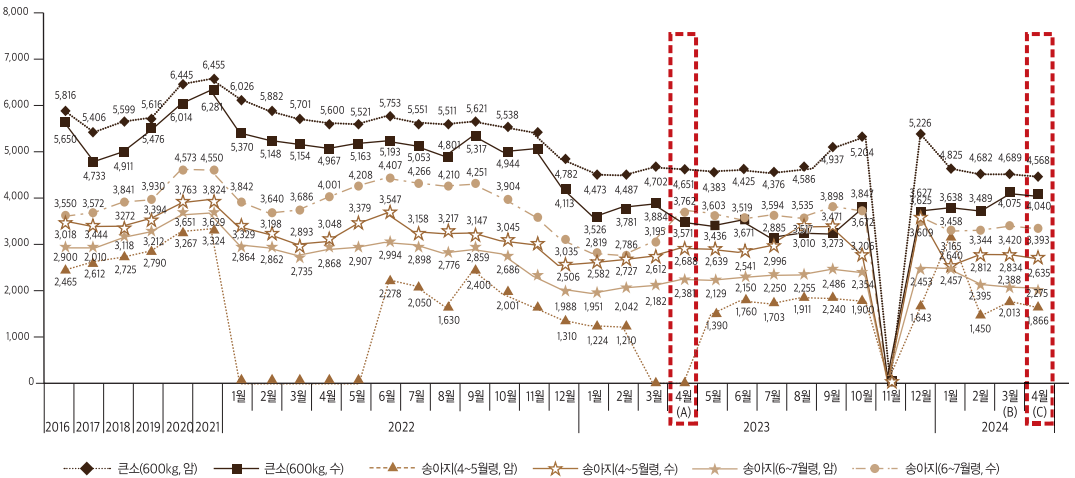


[표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단위: 원/kg, %)

| 구분   |           | 1**    | 1*     | 1      | 2      | 3      | 등외    | 평균     |
|------|-----------|--------|--------|--------|--------|--------|-------|--------|
| 2017 |           | 20,325 | 18,189 | 16,951 | 13,969 | 11,048 | 5,715 | 16,719 |
| 2018 |           | 20,958 | 19,416 | 17,967 | 14,965 | 12,025 | 6,194 | 17,772 |
| 2019 |           | 21,290 | 19,788 | 17,922 | 14,778 | 11,649 | 5,281 | 17,965 |
| 2020 |           | 23,302 | 21,504 | 19,997 | 16,050 | 12,443 | 5,468 | 19,891 |
| 2021 |           | 25,287 | 22,801 | 20,958 | 16,629 | 12,872 | 6,152 | 21,155 |
| 2022 |           | 23,905 | 20,698 | 18,296 | 14,029 | 10,276 | 5,616 | 19,099 |
| 2023 | 4월(A)     | 20,633 | 17,110 | 14,850 | 11,266 | 8,554  | 4,808 | 15,729 |
| 2024 | 3월(B)     | 19,402 | 16,428 | 14,947 | 11,594 | 9,206  | 4,273 | 15,659 |
|      | 4월(C)     | 19,747 | 16,431 | 14,782 | 12,147 | 9,833  | 5,196 | 15,877 |
|      | 전년동월(C/A) | △4.3   | △3.9   | △0.4   | 7.6    | 15.5   | 9.1   | 0.9    |
| 증감율  | 전월(C/B)   | 1.7    | 0.0    | △1.1   | 4.8    | 7.1    | 20.7  | 1.3    |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 4월 한우 산지가격 큰 소 암소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수소 상승, 전월 대비 큰 소 암 ⬇️수 모 두 하락, 송아지(6~7개월령)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모두 하락
- 4월 큰 소(600kg) 산지가격은 암소의 경우 4,568천원으로 전년 동월(4,651천원) 대비 1.8%(83천원) 하락, 전월(4,689천원) 대비 2.6%(121천원) 하락
    - 수소의 경우 4,040천원으로 전년 동월(3,762천원) 대비 7.4%(278천원) 상승전월(4,075천 원) 대비 0.9%(35천원) 하락
  - 4월 송아지(6~7개월령)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2,275천원으로 전년 동월(2,381천원) 대 비 4.5%(106천원) 하락, 전월(2,388천원) 대비 4.7%(113천원) 하락
    - 수송아지의 경우 3,393천원으로 전년 동월(3,571천원) 대비 5.0%(178천원) 하락, 전월(3,420 천원) 대비 0.8%(27천원) 하락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주 : 2020년 송아지(4~5월령)의 경우 3월과 5월은 코로나로 인한 가축시장 임시폐쇄로 가격자료 없음

[그림 4] 한우 산지가격 추이(전국)

[표 5] 한우 산지가격 추이 (단위: 천원, %)

| 구분   |           | 큰소(600kg) |       | 송아지(4~5월령) |       | 송아지(6~7월령) |       |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 2016 |           | 5,816     | 5,650 | 2,465      | 3,485 | 2,900      | 3,550 |
| 2017 |           | 5,406     | 4,733 | 2,612      | 3,444 | 2,919      | 3,572 |
| 2018 |           | 5,599     | 4,911 | 2,725      | 3,272 | 3,118      | 3,841 |
| 2019 |           | 5,646     | 5,476 | 2,790      | 3,394 | 3,212      | 3,930 |
| 2020 |           | 6,114     | 5,446 | 3,060      | 3,711 | 3,435      | 4,295 |
| 2021 |           | 6,455     | 6,281 | 3,324      | 3,824 | 3,629      | 4,550 |
| 2022 | 1월        | 6,026     | 5,370 | -          | 3,329 | 2,864      | 3,842 |
|      | 2월        | 5,882     | 5,148 | -          | 3,198 | 2,862      | 3,640 |
|      | 3월        | 5,701     | 5,154 | -          | 2,893 | 2,735      | 3,683 |
|      | 4월        | 5,600     | 4,967 | -          | 3,048 | 2,868      | 4,001 |
|      | 5월        | 5,521     | 5,163 | -          | 3,379 | 2,907      | 4,208 |
|      | 6월        | 5,753     | 5,193 | 2,278      | 3,547 | 2,994      | 4,407 |
|      | 7월        | 5,551     | 5,053 | 2,050      | 3,158 | 2,898      | 4,266 |
|      | 8월        | 5,511     | 4,801 | 1,630      | 3,217 | 2,776      | 4,210 |
|      | 9월        | 5,621     | 5,317 | 2,400      | 3,147 | 2,859      | 4,251 |
|      | 10월       | 5,538     | 4,944 | 2,001      | 3,045 | 2,686      | 3,904 |
|      | 11월       | 5,391     | 5,016 | 1,553      | 3,018 | 2,329      | 3,429 |
|      | 12월       | 4,782     | 4,113 | 1,310      | 2,506 | 1,988      | 3,035 |
| 2023 | 1월        | 4,473     | 3,526 | 1,224      | 2,582 | 1,951      | 2,819 |
|      | 2월        | 4,487     | 3,781 | 1,210      | 2,727 | 2,042      | 2,786 |
|      | 3월        | 4,702     | 3,884 | -          | 2,612 | 2,182      | 3,195 |
|      | 4월(A)     | 4,651     | 3,762 | -          | 2,688 | 2,381      | 3,571 |
|      | 5월        | 4,383     | 3,603 | 1,390      | 2,639 | 2,129      | 3,436 |
|      | 6월        | 4,425     | 3,671 | 1,760      | 2,541 | 2,150      | 3,519 |
|      | 7월        | 4,376     | 2,996 | 1,703      | 2,885 | 2,250      | 3,594 |
|      | 8월        | 4,586     | 3,517 | 1,911      | 3,010 | 2,255      | 3,535 |
|      | 9월        | 4,937     | 3,471 | 2,240      | 3,273 | 2,486      | 3,898 |
|      | 10월       | 5,204     | 3,847 | 1,900      | 3,206 | 2,354      | 3,672 |
|      | 11월       | -         | -     | -          | -     | -          | -     |
|      | 12월       | 5,226     | 3,627 | 1,643      | 3,625 | 2,453      | 3,609 |
| 2024 | 1월        | 4,825     | 3,638 | 3,165      | 2,640 | 2,457      | 3,458 |
|      | 2월        | 4,682     | 3,489 | 1,450      | 2,812 | 2,395      | 3,344 |
|      | 3월(B)     | 4,689     | 4,075 | 2,013      | 2,834 | 2,388      | 3,420 |
|      | 4월(C)     | 4,568     | 4,040 | 1,866      | 2,635 | 2,275      | 3,393 |
| 증감율  | 전년동월(C/A) | △1.8      | 7.4   | -          | △2.0  | △4.5       | △5.0  |
|      | 전월(C/B)   | △2.6      | △0.9  | △7.3       | △7.0  | △4.7       | △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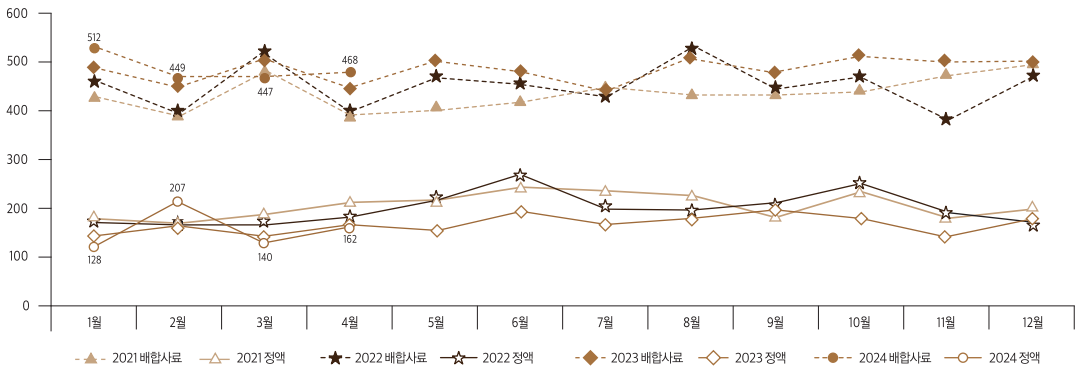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 4.

###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정액 판매 동향

- ◎ 2024년 4월 배합사료 누적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한우 정액 누적 판매량 전 년 동기간 대비 증가
- 4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468천 톤(당해년도 누적 1,876천 톤)으로 전년 동기간 누적 생산량 (1,866천 톤) 대비 0.54%(10천 톤) 증가
  - 4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162천 str(당해년도 누적 637천 str)로 전년 동기간 누적 판매량(632천 str) 대비 0.79% (5천 str) 증가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그림 5]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표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단위 : 천톤, 천str)

| 구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 배합<br>사료 | 2021 | 442 | 406 | 490 | 406 | 423 | 435 | 451 | 444 | 451 | 453 | 482 | 504 | 5,387 |
|          | 2022 | 473 | 417 | 514 | 418 | 485 | 453 | 436 | 529 | 458 | 478 | 409 | 491 | 5,561 |
|          | 2023 | 481 | 446 | 492 | 447 | 492 | 471 | 435 | 495 | 473 | 501 | 490 | 485 | 5,708 |
|          | 2024 | 512 | 449 | 447 | 468 |     |     |     |     |     |     |     |     | 1,876 |
| 정액       | 2021 | 172 | 162 | 179 | 209 | 209 | 233 | 226 | 214 | 183 | 220 | 170 | 197 | 2,374 |
|          | 2022 | 171 | 171 | 171 | 183 | 206 | 233 | 199 | 192 | 202 | 220 | 176 | 162 | 2,281 |
|          | 2023 | 132 | 167 | 152 | 181 | 161 | 194 | 172 | 188 | 200 | 178 | 135 | 170 | 2,030 |
|          | 2024 | 128 | 207 | 140 | 162 |     |     |     |     |     |     |     |     | 637   |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5. ◎ 2024년 4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감소

- 4월 쇠고기 수입량은 3만 7,710톤으로 전년 동월 4만 1,615톤 대비 9.4% (3,905톤) 감소, 전월 3만 7,769톤 대비 0.2%(59톤) 증가
- 전월 대비 냉동 쇠고기 0.6%(185톤) 증가, 냉장 쇠고기 2.7%(244톤) 감소

쇠고기  
수입현황

[표 7] 쇠고기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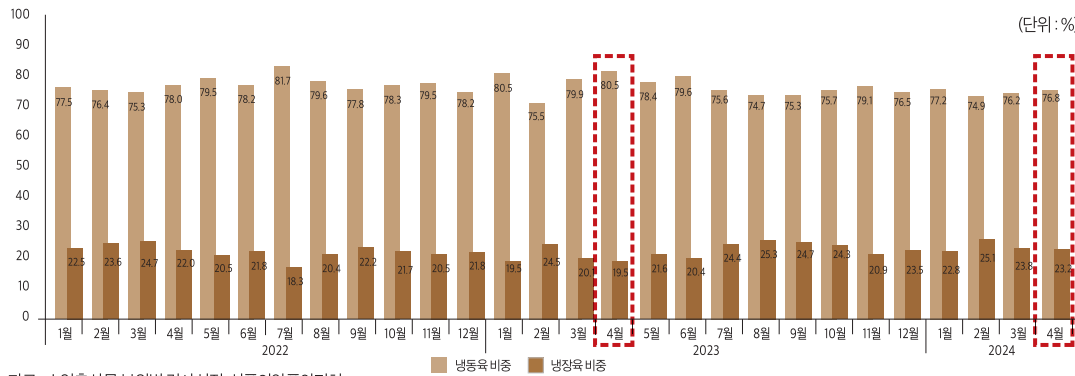
(단위 : 톤, %)

| 구분   | 물량      |         |         | 부위별     |        |        |        |         | 국별      |         |        |
|------|---------|---------|---------|---------|--------|--------|--------|---------|---------|---------|--------|
|      | 합계      | 냉동      | 냉장      | 갈비      | 양지     | 앞다리    | 등심     | 기타      | 미국      | 호주      | 기타     |
| 2016 | 361,531 | 301,219 | 60,312  | 133,197 | 35,049 | 45,295 | 50,001 | 97,989  | 153,181 | 177,530 | 30,820 |
| 2017 | 344,271 | 265,665 | 78,606  | 142,659 | 37,517 | 42,648 | 39,031 | 82,416  | 168,502 | 149,935 | 25,834 |
| 2018 | 415,685 | 326,531 | 89,154  | 151,933 | 53,737 | 54,270 | 55,595 | 100,150 | 219,769 | 167,454 | 28,462 |
| 2019 | 426,626 | 339,240 | 87,386  | 164,792 | 57,444 | 53,881 | 49,849 | 100,660 | 237,624 | 163,158 | 25,844 |
| 2020 | 419,469 | 321,646 | 97,823  | 161,018 | 54,616 | 54,937 | 44,522 | 104,376 | 228,686 | 158,293 | 32,490 |
| 2021 | 452,792 | 333,412 | 119,381 | 153,481 | 65,331 | 60,625 | 46,948 | 126,407 | 254,874 | 160,117 | 37,801 |

| 구분   |      | 물량      |         |         | 부위별     |        |        |        |         | 국별      |         |        |
|------|------|---------|---------|---------|---------|--------|--------|--------|---------|---------|---------|--------|
|      |      | 합계      | 냉동      | 냉장      | 갈비      | 양지     | 앞다리    | 등심     | 기타      | 미국      | 호주      | 기타     |
| 2022 |      | 476,754 | 373,723 | 103,031 | 175,626 | 84,215 | 54,241 | 41,152 | 121,520 | 265,464 | 162,084 | 49,206 |
| 2023 | 1월   | 35,649  | 28,695  | 6,955   | 11,685  | 5,608  | 5,619  | 3,197  | 9,540   | 17,022  | 14,187  | 4,440  |
|      | 2월   | 35,118  | 26,500  | 8,618   | 13,171  | 5,511  | 5,129  | 2,806  | 8,501   | 21,270  | 10,317  | 3,531  |
|      | 3월   | 43,632  | 34,874  | 8,758   | 15,822  | 6,523  | 5,944  | 3,958  | 11,385  | 23,952  | 15,077  | 4,603  |
|      | 4월   | 41,615  | 33,514  | 8,101   | 13,263  | 6,438  | 5,909  | 4,073  | 11,932  | 20,291  | 17,999  | 3,325  |
|      | 5월   | 44,373  | 34,783  | 9,590   | 13,788  | 5,896  | 7,086  | 4,815  | 12,788  | 23,587  | 16,984  | 3,802  |
|      | 6월   | 39,076  | 31,120  | 7,956   | 11,771  | 4,719  | 5,193  | 4,695  | 12,698  | 19,504  | 15,863  | 3,709  |
|      | 7월   | 36,507  | 27,601  | 8,906   | 12,098  | 3,690  | 4,848  | 4,697  | 11,174  | 19,314  | 15,402  | 1,791  |
|      | 8월   | 37,652  | 28,137  | 9,515   | 12,563  | 3,705  | 4,806  | 5,576  | 11,002  | 19,155  | 16,723  | 1,774  |
|      | 9월   | 31,499  | 23,721  | 7,778   | 11,196  | 3,931  | 2,978  | 4,113  | 9,281   | 15,598  | 13,647  | 2,254  |
|      | 10월  | 39,393  | 29,817  | 9,576   | 12,721  | 5,766  | 3,931  | 5,316  | 11,659  | 16,958  | 20,338  | 2,097  |
|      | 11월  | 34,358  | 27,179  | 7,179   | 12,016  | 5,573  | 4,080  | 4,164  | 8,525   | 15,388  | 16,711  | 2,259  |
|      | 12월  | 35,049  | 26,813  | 8,236   | 12,583  | 6,635  | 3,881  | 3,888  | 8,062   | 17,712  | 14,692  | 2,645  |
|      | 누계   | 453,921 | 352,754 | 101,168 | 152,677 | 63,995 | 59,404 | 51,298 | 126,547 | 229,751 | 187,940 | 36,230 |
| 2024 | 1월   | 41,080  | 31,718  | 9,362   | 14,313  | 7,935  | 4,780  | 4,891  | 9,161   | 19,877  | 18,096  | 3,107  |
|      | 2월   | 27,625  | 20,688  | 6,937   | 10,308  | 4,499  | 3,625  | 2,614  | 6,579   | 15,528  | 10,469  | 1,628  |
|      | 3월   | 37,769  | 28,780  | 8,989   | 14,693  | 6,003  | 4,782  | 3,761  | 8,530   | 19,684  | 14,626  | 3,459  |
|      | 4월   | 37,710  | 28,965  | 8,745   | 14,113  | 5,904  | 4,810  | 3,988  | 8,895   | 18,998  | 16,217  | 2,495  |
|      | 누계   | 144,184 | 110,151 | 34,033  | 53,427  | 24,341 | 17,997 | 15,254 | 33,165  | 74,087  | 59,408  | 10,689 |
| 증감률  | 전년동월 | △0.2    | 0.6     | △2.7    | △3.9    | △1.6   | 0.6    | 6.0    | 4.3     | △3.5    | 10.9    | △27.9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축산물 검사실적 순기보고'

- 4월 부위별 쇠고기 수입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갈비만 6.4%(850톤) 증가, 기타 25.5%(3,037톤), 앞다리 18.6%(1,099톤), 양지 8.3%(534톤), 등심 2.1%(85톤) 순으로 감소
- 4월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호주산이 10.9%(1,591톤) 증가, 미국산 3.5%(686톤) 감소



자료 : 수입축산물 부위별 검사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림 6] 수입쇠고기 냉동육과 냉장육 비중 변화 추이



# 한우마당

Hanwoo Journal



전국한우협회 회원 소식지 **한우마당**은

매달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한우마당**은 대한민국 전체 한우 사육두수 약 70%에 달하는

협회 회원과 전후방업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 광고문의

- 1) 광고 문의 및 접수 : 025251053@daum.net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월간 한우마당」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참고)
- 2) 광고규격 : 188mm×257mm / 내부여백 7~10mm 필요
- 3) 광고금액 : 홍보팀 문의 (장기계약 우대)  
※ 「한우마당」 광고업체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홍보관 메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원고 및  
광고시안  
마감

## 주요 배부처 및 일정

- 1) 협회 대의원 및 임원 등 지도자, 전국 지회·지부, 일반 회원농가
- 2)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국 각 지자체 축산과
- 3) 전국 수의대학 및 동물생명, 축산학과, 특성화 대학 등
- 4) 전국 농축협 및 관련 유관기관, 한우협동조합, 전문지 언론사
- 5) 사료 기자재 등 한우마당 광고업체



## 구독안내

**한우마당**은 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전국한우협회 홍보팀으로 문의주십시오.

☎ 02)525-1053 (내선 202 또는 218)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https://www.ihanwoo.org>



제25권 제6호(통권 211호) / 2024년 6월 10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민경천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편집 김재광  
광고 이기찬    제작 HNCOM    발송 지산포스트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2층  
전화 02)525-1053 / 02)597-2377    팩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카카오톡 채널 검색 > @한우협회  
한우협회 누리집 [www.ihanwoo.org](http://www.ihanwoo.org)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전국한우협회



# 전국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 농가가 원하는 적기 출하
- 경매 상장 수수료 無
- 운송비 절감
- 하자육 발생시 농가 손실 방지제도 운영



• 한 차(8두 기준) 출하, 100만원 이상 이득 ⇒ **농가수익개선**

전국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유통망은 부산물 제값받기와 적기출하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한우협회 전용 도축유통망입니다.  
경매 상장수수료가 없고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영안정에 유익합니다.

### ◆ 출하 신청방법 ☎ 02-525-1053

- 담당 : 유통사업국 박호경 과장(내선 207)
- 시기 : 출하 계획 14일~30일전 협회로 신청
- 접수 : 중앙회 담당직원 연락 또는 시군지부 접수
- 팩스 : 02-525-1054



### ◆ 정산기준

| 구분             | 거세우   | 암소                                    | 비고   |
|----------------|---|---------------------------------------|--|
| 출하규격<br>(지육중량) | 27개월령 이상 36개월령 이하<br>380kg이상 600kg이하  | 26개월령 이상 60개월령 이하<br>300kg이상 550kg 이하 | ※ 등심단면적 기준<br>(거세) 86cm <sup>2</sup> 이상 110cm <sup>2</sup> 이하<br>(암소) 76cm <sup>2</sup> 이상 100cm <sup>2</sup> 이하 |
| 가격적용<br>기준     | 농협 음성공판장<br>화,수,목,금 평균가   | 음성공판장<br>화,수,목 평균가                    |  |
| 부산물            | 두·내장·우족은 농협 음성공판장 가격 적용   |                                       | 우피는 당해 도축장 가격에 따름  |
| 하자육 처리         | 근출혈 보상보험 두당 8,500원  |                                       | 하자육 금액이 kg당 1,000원<br>이상으로 발생시 일부 자부담 발생   |
| 출하장려금          | (거세, 두당 7만원) 도체중 420kg~560kg이하, 월령 30~34개월이하, 등심단면적 86cm <sup>2</sup> 이상<br>(암소, 두당 12만원) 도체중 350kg~550kg이하, 월령 28~60개월이하, 등심단면적 76cm <sup>2</sup> 이상 |                                       |  |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